Weekly
# 공감

2009 09.23
No.30(통권 131호)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기획특집 우리 농산물 명품시대를 연다

추석 연휴, 신종플루 비상진료체계 가동

'소리열차'에서 공연하는 세 쌍둥이 국악밴드 'IS'

입금액 두 배로 불어나는 '마법 통장' 아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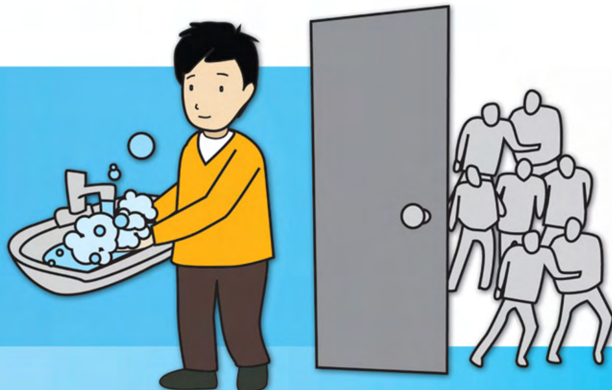
## 스마일 어게인
# '서민 은행' 만든다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www.cdc.go.kr

# 함께 지켜주세요

## 우리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행동요령



###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외출 후에도, 평소에도 손 씻기를 습관화해주세요.



### 에티켓도 잘 지키고!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면,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는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 사람 많은 곳은 조심조심!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사람이 많은 장소는 되도록 피해주세요.



### 걱정없이 회복을!

신종인플루엔자는 가벼운 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경증의 건강한 사람은 항바이러스제 치료 없이 회복됩니다.



### 편히 쉬고, 많은 양의 수분을!

건강한 사람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 반드시 진료를!

만성심폐질환, 천식, 당뇨, 비만, 임산부나 노인 분들은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농식품도 스토리를 팔아야 한다"

**민승규**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얼마 전 추석선물 안내책자와 장관 서한을 갖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현대, 삼성을 찾았다. 기업체 대표들과 만나 기업들이 추석선물로 우리 농식품을 애용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한 대기업이 자회사와 계열사에 우리 농수산물 위주의 '소액선물 주고받기'에 나섰다는 소식을 접했다. 우리 땅과 바다에서 생산되고 정성이 담긴 농식품을 선물하는 것은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주고받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다.

추석선물로서의 우리 농식품 애용하기는 단순히 어려운 농어업인을 돕는 차원에서 그치면 곤란하다. 기왕에 우리 농식품 선물로 주고받기가 시작되었으니, 우리 농식품이 바뀌어야 할 차례다. 품질을 차별화하고 명품화하여 누구나 선물로 우리 농식품을 먼저 떠올리게 해야 한다.

지금은 생산만 하면 팔리던 시대가 아니다. 농수산식품도 고객의 욕구를 채워주는 명품이 돼야 한다. 쌀 하나만 보더라도 여주쌀, 이천쌀과 같은 브랜드뿐만 아니라 도정을 덜한 쌀, 오리가 키운 쌀이 나오고 있다. 나중에는 금이나 은을 입힌 쌀까지 나올지도 모른다.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소비는 감소한다는 수요의 법칙은 경제학의 기본이지만 가격이 비쌀수록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소비 행태도 나타난다. 베블렌 효과(Veblen Effect)라고 하는 이 현상은 확실한 신분제도가 없는 현대 대중사회에서 자신의 존재를 남들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생긴다.

우리 농식품도 소비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특별한' 장점으로 차별화한다면 샤넬, 루이비통과 같은 명품이 될 수 있다.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패션 명품에서 알 수 있듯이 소비자를 유혹할 수 있는 멋있는 이야기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물건을 판다기보다는 스토리를 팔아야 한다. 농수산물에 예술과 우리 고유의 문화를 접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드는 사람의 혼과 신뢰도 심어야 한다. 농수산물이 명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소비자가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정신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가지거나 먹음으로써 자신만의 정체성을 드러낼 뿐 아니라 남에게 입소문을 낼 수 있는 강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명품 농식품은 소비자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생산해야 한다. 그렇게 하자면 소비자가 원하는 기준에 철저히 부합해야 하고, 일반 제품과 확연히 구별되는 브랜드 차별화가 절실하다. 일정 규모의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특정 농수산물을 선호하도록 하는 대중화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

팔도강산 방방곡곡에는 우리 농어업을 차별화시킬 다양한 소재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농어업인, 그리고 지역 주민이 힘과 뜻을 모은다면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명품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이 모인 것이 대한민국 농어업의 경쟁력이다. G



기획특집

# 대한민국 농산물 **명품시대를 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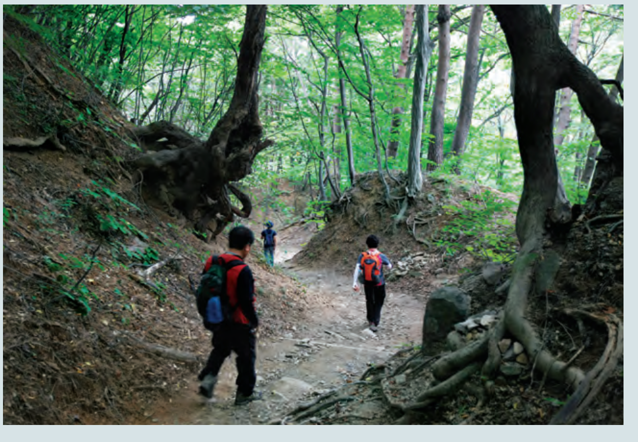
고장의 특성과 전통을 살린 특산품들이
전국 각지에서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우수한 품질과 차별화 전략으로
명품 반열에 오른 특산품들은 지역축제와
연계해 고장을 알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자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들의 질주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지역 특산품은 우리 농어촌 살리기의
핵심동력으로 거듭나고 있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42



58


Weekly 공감

**발행일** 2009.9.23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ttp://gonggam.korea.kr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 〈Weekly 공감〉 29호에 실린 '이슈 인터뷰–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관련해 올라온 댓글입니다.

"일반 비누로 30초 동안 손을 꼼꼼히 씻으면 세균 99퍼센트를 없앨 수 있지만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손 소독제라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좋은 정보였습니다."_ 이성일

●● 〈Weekly 공감〉 29호에 실린 '포커스–동훈 남북평화통일연구소장 인터뷰' 기사가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아 인용 보도됐습니다.

〈서울신문〉은 9월 15일자 4면에 "박정희 대통령이 4대강 개발 사업에 관심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친필문서가 공개됐다. 박 대통령 비서관을 지낸 동훈(75) 남북평화통일연구소 소장은 박 대통령이 '중요업무발췌'라는 제목으로 만년필로 쓴 친필메모를 문화체육관광부가 16일자로 발행한 정책정보지 '위클리 공감'에 소개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한겨레〉와 〈매일경제〉 〈한국경제신문〉 〈아시아경제〉 등도 이 소식을 같은 날 지면에서 다뤘습니다. 통신사인 〈연합뉴스〉 〈뉴시스〉와 인터넷 매체인 〈뉴데일리〉 〈프런티어타임스〉 〈나눔뉴스〉 〈프라임경제〉 등도 같은 날 주요 뉴스로 화면에 올렸습니다.

〈Weekly 공감〉을 읽고

## 소프트웨어엔 하드웨어와 다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Weekly 공감〉 29호에 실린 'IT(정보기술) 코리아' 기획특집은 어느 때보다 반가운 기사였다. IT업계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행여 IT산업에 이미 충분히 투자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소홀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IT코리아 5대 미래전략' 발표를 지켜보면서 우리 IT업계와 시각이 같아 안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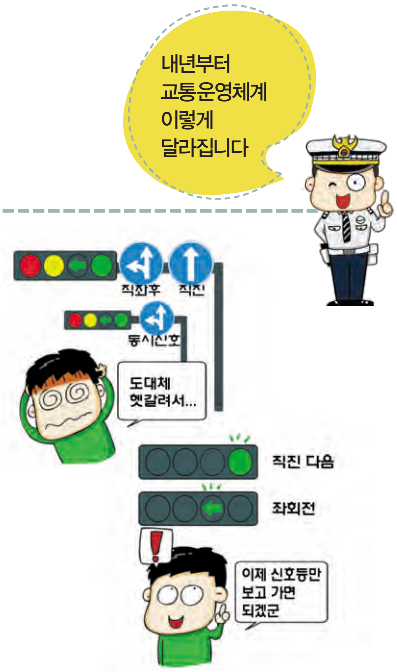
그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IT산업에 대한 투자다. 현재 우리 회사도 좁은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탈피하기 위해 수출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는데, 수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가 필요하다. 수출 경쟁력 가운데 가장 기본이 산업 자체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업계는 아직 취약하다. 굳이 원인을 따져본다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IT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발전해서 모든 정책이 하드웨어 쪽에 맞춰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이 다르다. 과거 우리가 하드웨어 분야에서 후발국가로서 선두를 쫓아갈 때는 가격경쟁력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소프트웨어의 경우 가격경쟁력만으론 부족하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선진국과 맞붙어 이기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아이템 발굴이 필요하다. 특히 수출 아이템을 발굴해야 한다. 정부 정책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다르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정부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번에 5대 미래전략에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킨 것은 무척 다행스럽다. 최근 정부가 IT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를 많이 하는데 상용화된 분야보다는 기초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기를 기대한다. 튼튼한 기초기술이 있어야 IT가 앞으로 오래도록 한국을 먹여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글 · 조규곤(파수닷컴 대표)

Weekly 공감(gonggam.korea.kr), 청와대(www.president.go.kr),
대한민국정책포털(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등에 실린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복잡하던 신호 순서가 명확해져요.



생활습관을
바꾸면 지구가
건강해집니다

친환경 상품을 사용하면
가정당 연간 3백50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어요.
포장재를 줄이고 장바구니 이용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면 폐기물 1킬로그램당
약 1백20그램씩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어요.

## 공감마당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연락처와 함께 9월 24일(목)까지 gonggam@korea.kr로 e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호에 실린 기사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간단히 적어주십시오.
2. 이번 호 기획특집에서 다룬 지역 특산품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책에 대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기사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 공감 퍼즐

| | | | | | |
|---|---|---|---|---|---|
| ■ | 1 | | | 2 | ■ |
| ■ | | ■ | ■ | | ■ |
| 3 | | ■ | 4 | | 5 |
| | ■ | ■ | | ■ | |
| 6 | | ■ | | ■ | |
| | ■ | 7 | | ■ | ■ |




빈칸의 정답을 적어 주소, 연락처와 함께
9월 30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과 녹색생활 실천 머그컵을 드립니다.

### 〈Weekly 공감〉 27호(9월 2일자) '공감 퍼즐' 정답과 당첨자

**가로 1** 신용회복 **3** 무담보 **6** 세금 **9** 산전수전
**세로 2** 복무 **4** 보증인 **5** 월세 **7** 금강산 **8** 상미전

### 당첨자

고진영(제주 제주시 도남동)
박종호(전북 정읍시 시기3동)
백지숙(울산 남구 야음동)
심재섭(강원 영월군 북면 마차리)
이미희(대전 서구 둔산동)

### 가 로

**1.** '몸과 땅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뜻으로, 우리 땅에서 난 농산물이 우리 체질에 잘 맞는다는 말이죠.
**3.** 푸른빛이 그대로 나도록 잘 말린 부드러운 찻잎이나 그 찻잎을 우린 물.
**4.** 요즘 '잘 나가는' 우리나라 전통 술의 하나. 맑은 술을 따로 떠내지 않고 그대로 걸러 짠 술.
**6.** 짠맛이 나는 백색의 결정체. 바닷물로 만들죠.
**7.** 고기 맛이 좋죠. 우리 소. 이제는 세계로 수출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 세 로

**1.** 심부름하는 값으로 주는 돈. 신발값.
**2.** '소림사' '황비홍' 등의 영화에 출연한 중국 배우. 무술을 잘하죠.
**3.** 지구 환경 파괴, 기후변화 등으로 인류의 미래가 위협받는 오늘날에 요구되는 환경친화적이고 합리적인 생활을 고려한 소비. Green Consumption.
**4.** 서로 거스르지 않는 친구라는 뜻으로, 아무 허물없이 친한 친구를 가리키는 말.
**5.** 축구에서 스위퍼(Sweeper)와 같은 최종 수비수 역할을 하면서 공격에도 적극 가담하는 선수. 2002 한일월드컵 때 홍명보와 같은 선수를 이렇게 불렀죠.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통해 창업지원금을 받아 친구들과 여성의류 가게를 차린 이지은 씨(사진 맨 왼쪽)가 반갑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

# 기업 기부금으로 서민 대출

## '美少 금융' 10년간 2조원 조성

정부가 서민의 미소 찾아주기에 나선다. 경기 불황으로 힘겨운 서민의 마음에 따사로운 햇살이 될 이 정책은 저신용 서민의 자활을 돕기 위한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이다. 이제 '미소(美少)금융'으로 이름을 바꾼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은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서민 자활 지원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향후 10년간 2조원 이상 기금을 조성하고 전국 모든 시군구에 마이크로 크레디트 취급 기관이 설치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여서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도 전국 어디서나 5백만원 안팎의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9월 17일 열린 제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현재 소액서민금융재단, 보건복지가족부,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무담보·소액 대출, 즉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미소금융사업'으로 묶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화하고 자금 규모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미소(美少)금융'이란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대체해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소액대출(아름다울 美, 적을 少)'이라는 의미로 명명됐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회의에서 발표한 '서민의 자활 지원을 위한 미소금융(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 대폭 확대' 방안에 따르면 기존의 소액서민금융재단을 (가칭)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 개편해 미소금융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은 '휴면예금관리재단법'에 따라 지난해 3월 설립됐으며 휴면예금 관리와 이를 통한 복지사업의 지원·감독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 저신용 저소득층에 무담보 소액신용대출 확대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주무 기관별로 분산된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을 미소금융중앙재단을 중심으로 묶어 전국 2백49개 시군구 모든 곳에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 한 곳 이상을 설치한다. 최대 3백 개 이상 전국적인 마이크로 크레디트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마이크로 크레디트 취급 기관은 수도권과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어 지방 소도시와 농어촌 서민들은 소외돼왔다.

게다가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 양극화가 심화돼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서민층이 증가한 데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쳐 저신용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 안전대책이 절실했다.

그동안 정부가 신용회복 지원, 저금리 전환대출 등 다양한 서민금융 대책을 내놓았지만 경기침체로 크게 늘어난 서민금융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충분치 못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올 8월까지 △신용회복기금 1만4천5백61건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 개인프리워크아웃) 12만4천9백71건 등 서민금융 지원을 해왔으며 재래시장과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도 2~3.5퍼센트에서 2~2.2퍼센트로 인하하는 등 다각도 지원을 해왔다.

**미소금융법인은 앞으로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프랜차이즈와 일반 창업, 자활단체의 공동 대출,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 500만~1억원까지 시장 금리보다 2, 3% 낮은 금리로 1~5년간 대출하게 된다.**

향후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의 중추 기능을 하게 될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 기부 등을 중심으로 사업재원을 조성해 운영하게 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일단 자금 운영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미소금융사업에는 앞으로 10년간 2조원 이상 기금이 조성된다. 올해만 약 3천억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러한 규모는 과거 10년간(2000~2009년) 마이크로 크레디트 지원 규모(1천4백80억원)의 13배 이상이다. 앞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기업을 포함해 재계에서 약 1조원의 기부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휴면예금 출연금(7천억원)을 포함한 금융권 기부금도 1조원에 이르는 등 모두 2조원의 미소금융 기금이 조성될 예정이다.

### ‘자활’ 목표 창업·경영 컨설팅 전문가 지원도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20만~25만 가구 이상의 저소득층이 미소금융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소금융법인은 앞으로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프랜차이즈와 일반 창업, 자활단체의 공동 대출,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 5백만~1억원까지 시장 금리보다 2, 3퍼센트 낮은 금리로 1~5년간 대출하게 된다.

지역 미소금융법인을 신설하는 작업은 향후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지역 미소금융법인을 모집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 12월부터 1단계로 20~30개의 지역별 법인을 설립한다. 다음 2단계로 내년 6월부터 전국에 최대 3백개 수준의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해 미소금융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전국의 영세상인과 서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을 공개모집할 예정이다.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은 대출기능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활’을 목표로 하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의 특성을 살려 소상공인진흥원 소속 전문가(RM) 등의 지원을 받아 창업과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또 상담자에게 채무재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연결해주는 신용회복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1970년대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등 해외에서 금융 소외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마이크로 크레디트 제도는 우리나라에도 도입돼 2000년 이후 30여 민간단체가 정부 재정, 지자체 예산, 소액서민금융재단 자금, 민간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왔으나 전체 사업 규모가 작고 효율성이 낮은 데다 서민 접근이 제한되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왔다.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과 배준수 과장은 “지금까지 마이크로 크레디트 성과를 보아 무담보 소액신용대출을 전국으로 확대해도 기금이 부실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기업의 기부금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에 내는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G

글 · 박경아 기자

### 미소금융사업 지원 대상과 내용

| | 내용 | 조건 |
|---|---|---|
|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 원재료 구입, 시설 개·보수 자금 등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운영자금 지원. 소상공인진흥원 등이 구조조정과 취급상품 변경 등 필요를 인정한 경우도 지원 | 1천만원 이내<br>5년 분할 상환<br>시장보다 2~3% 낮은 금리 |
| 전통시장 상인 |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운영자금 지원 | 상인당 5백만원<br>3년 분할 상환<br>시장보다 2~3% 낮은 금리 |
| 프랜차이즈 | 시장에서 검증받아 성공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업체를 연계, 권리금 등 창업자금 지원 | 5천만원 이내<br>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br>시장보다 2~3% 낮은 금리 |
| 창업자금 | 창업자금 또는 기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임차보증금 지원 | 5천만원 이내<br>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br>시장보다 2~3% 낮은 금리 |
| 자활단체 공동대출 | 자활공동체 등 자활추진단체에 대해 창업자금과 운영자금 지원. 수요와 사업성 등 평가 | 1억원 이내<br>5년 분할 상환<br>시장보다 2~3% 낮은 금리 |
| 사회적 기업 |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 운영자금 등 지원 | 1억원 이내<br>5년 분할 상환<br>시장보다 2~3% 낮은 금리 |



일러스트 · 이우정

# "지역발전에 126조4천억 투입 부가세 5% 지방소비세로 전환"

정부가 지역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되고, 앞으로 5년간 126조4000억원을 투입해 7개 지역경제권을 육성한다. 또 지방교육을 활성화하고 의료, 복지, 문화를 강화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국가가 보장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 국민통합, 경제 살리기 정책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1백26조4천억원이 투입되며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가 지방세로 이양된다. 또 지방에 기숙형 고등학교 설립이 확대되며 낙도, 오지 등 의료취약지역에는 u-헬스 원격의료 서비스가 도입된다. 정부는 9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09년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발전 방안을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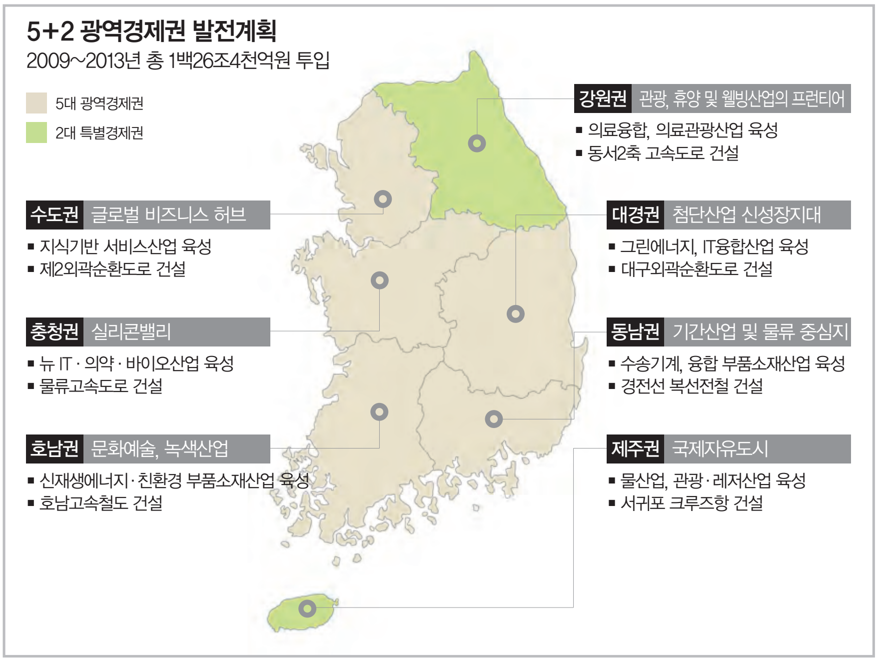
**지식경제부** 지원 대상 개방… 광역권별 연계사업 지원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지역발전 5개년(2009~2013년) 계획안의 핵심 내용은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대구·경북권) 등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권, 제주권 등 2대 특별경제권으로 나누고 권역별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1백26조4천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특히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특정 산업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지식서비스, 융합, 문화콘텐츠 등 개방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광역권별 연계·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충청권에는 세종시를 산업발전 허브로 정보기술(IT), 의약,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물류고속도로, 서해안 복선전철, 동서4축 고속도로 등을 건설한다. 호남권은 새만금과 전주, 광주, 목포,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고 새만금 개발과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한다.

동남권은 부산, 울산, 진해만, 사천만을 4대 축으로 수송기계와 융합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고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마산과 거제를 연결하는 연륙교, 동북아 제2허브공항 등을 건설한다. 그린에너지와 IT 융·복합산업이 선도산업으로 채택된 대경권은 구미, 대구, 포항을 연계하는 지식기반축과 동해안 중심의 해양연계축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된다.

수도권은 선도산업이 없는 대신 국제 업무, 지식서비스, 산업 및 물류, LCD 신산업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을 추진한다. 강원권은 의료융합, 의료관광산업이 선도산업으로 육성되며 동서2축 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가 건설된다. 제주권은 물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을 집중 육성하




동아DB


대전 대덕특구는 충청권 발전의 거점이다.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성장할 부산항.


새만금 개발사업은 호남권 주요 선도사업이다.

고 서귀포 크루즈항, 제주해양과학관 등이 들어선다.

이 밖에도 정부는 1백63개 시군을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으로 나누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소득원을 늘리고 복지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전국에 'ㅁ'자형 고속화철도망을 구축하고, 동·서·남해안 벨트, 내륙 벨트, 남북교류 접경 벨트를 조성하는 초광역개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러한 지역발전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올해 19조5천억원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연평균 10.8퍼센트씩 소요 예산이 늘어나 2013년에는 29조3천억원이 투입된다. 5년간 총투입액 가운데 국비는 71조2천억원이며 지방비는 24조3천억원, 민간자금은 30조9천억원이다. 지식경제부 정순남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번 투자로 2013년까지 3백29조7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백89만5천명에 이르는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된다.

## 행정안전부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추가부담 없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 징수 총액(올해 기준 약 46조원)의 5퍼센트인 약 2조3천억원이 지방소비세로 돌려져 16개 시도에 나눠진다. 또 2013년부터는 지방소비세 규모를 늘려 부가세 총액의 10퍼센트를 지방에 이양한다. 인구와 소비가 많은 수도권에 돈이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 1백 퍼센트, 비수도권 광역시 2백 퍼센트, 일반 도 3백 퍼센트 등 지방에 유리하게 가중치를 두어 배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1차로 부가세의 5퍼센트를 지방세로 바꿀 때 지방교부세 감소분(4천4백억원)과 교육교부금 감소분(4천6백억원)을 제외하고 지방재정의 순(純)증가액은 1조4천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국민 추가 부담은 없으며 납세 불편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조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며 부과와 징수도 지금처럼 국세청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이다.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난 10년간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숙원 과제로,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53.6퍼센트인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내년에는 55.8퍼센트로 올라가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에 각각 10퍼센트씩 부과되는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올해 6조9천억원)의 명칭을 지방소득세로 바꾸고, 2013년부터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정해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소득세의 도입은 지자체에 실질적인 과세자주권을 보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지방소득세가 정착되면 지자체가 기업 유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정책 수단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 재정확충 방안으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분권교부세 운영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중 10년 동안 매년 약

3천억원을 출연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지방재정 지원제도는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거쳐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교육과학기술부 기숙형 고교추가선정… 교육복지강화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교육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먼저 지방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82곳인 기숙형 고등학교를 68곳 추가 선정하고, 공공기관이나 기업 이전으로 학교 수요가 증가하는 자유경제구역이나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에는 자율형 사립고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방대학의 우수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재 매학기 등록금의 50퍼센트(이공계)와 80퍼센트(인문계)인 장학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의 지역사회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이스터고를 13개 시도별로 2, 3개씩 지정해 총 35~40개교를 육성한다. 현장 맞춤형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 산업체 간에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원학교와 돌봄학교를 운영하고, 영어교육의 격차를 해소하는 등 농산어촌 주민들의 교육복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지방교육 활성화 대책은 지방교육의 경쟁력 약화가 지역사회 침체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 200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농촌 주민 60.1퍼센트가 교육시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며, 1999년 대비 2008년 학생 감소율도 농산어촌(14.9퍼센트)이 도시(5.8퍼센트)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 지역발전위원회 향토자원 브랜드화…지역 맞춤형 지원

지역발전위원회는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을 내놓았다. 창녕 우포늪 생태공원처럼 지역환경을 자원화하고, 전통음식 등 향토 자원의 브랜드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지역 내 성장잠재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낙도, 오지 등에 내년 하반기부터 u-헬스 원격의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농어촌 공동체형 가정을 조성하는 등 의료, 복지, 문화, 생활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장촉진지역은 도로, 상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을 할 때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접경·도서 지역 등 특수상황지역은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하며, 지자체가 예산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하는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역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은 농산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는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의 일환이며,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인 기초생활권에 대한 재인식을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발전은 서민 배려와 함께 중도실용, 친서민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기업은 회복세를 조금 체감하기 시작했지만 지방이나 서민은 아직도 체감할 수 없다"며 "지역이 활성화되고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G

글 · 이혜련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9월 16일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G20 국가 저탄소 경쟁력 보고서… "한국 세계 4위"

# "강력한 정책 의지 높이 평가"

우리나라 저탄소 경쟁력 지수가 세계 4위로 나타났다. 영국의 국제적 싱크탱크인 E3G는 'G20 국가 저탄소 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이 프랑스, 일본,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저탄소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잠재력이 세계에서 다시 인정을 받았다. 런던에 있는 국제적 싱크탱크인 E3G (Third Generation Environmentalism)는 최근 발간한 'G20 국가 저탄소 경쟁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저탄소 경쟁력(Low Carbon Competitiveness) 지수'를 세계 4위로 발표했다. '저탄소 경쟁력 지수'는 제품과 서비스 생산을 위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각국의 경쟁력을 의미한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면서 제품 생산을 많이 할수록 경쟁력이 높아지는 셈이다.

보고서는 한국이 4위를 차지한 배경으로 효율적인 전기공급망, 녹색성장에 대한 과감한 예산투입 등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꼽았다. 1위를 차지한 프랑스의 경우 청정에너지인 원자력 발전을, 2위인 일본은 에너지 효율성, 3위인 영국은 저탄소 에너지 개발 등이 강점으로 제시됐다. 반면 10위에 그친 미국은 교통 등에서 석유 의존도가 높은 인프라가 약점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저탄소 개선 지수'에서는 G20 국가 중 15위로 나타났으며 '저탄소 갭 지수'에서는 8위에 머물렀다. 저탄소 개선 지수는 경제성장에 따른 탄소 생산성 증가 비율로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경제성장을 많이 했지만 탄소 생산성이 낮으면 지수가 낮게 나오게 된다.

### "탄소 생산성 개선은 미흡… 추후 호전 가능성 높아"

저탄소 갭 지수는 전 지구 온실가스 농도를 4백50ppm $CO_2$로 안정화시키기 위해 달성해야 하는 저탄소 개선 지수와 실제 저탄소 개선 지수의 차이를 나타낸다. 점수가 낮을수록 차이가 크다는 뜻이다.

청와대 김상협 미래비전비서관은 "저탄소 경쟁력이 이처럼 높게 나타난 것은 한국의 녹색산업 기술의 발전 가능성과 이에 대한 정부의 육성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저탄소 개선 지수나 갭 지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아쉽지만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 역량에 비춰볼 때 더 많은 실천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전략이 올해부터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저탄소 개선 지수와 저탄소 갭 지수는 크게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 G

글 · 유형준(전자신문 경제교육부 기자)




동아DB




**South Korea (KOR)**

South Korea is ranked 4th. It has the highest level of high-technology exports, the most efficient electricity transmission network, high rates of investment in physical capital, and low rates of depletion of natural capital. It could improve its performance by reducing the cost to start up a business and reducing its reliance on air freight.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적 싱크탱크 E3G는 최근 발간한 'G20 국가 저탄소 경쟁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저탄소 경쟁력 지수'를 세계 4위로 발표했다. 지난 6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린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 설치된 녹색성장 전시장(위).

### G20 저탄소 경쟁력 주요 국가 순위

| 저탄소 경쟁력 지수 | 국가 | 저탄소 개선 지수 |
|---|---|---|
| 1 | 프랑스 | 5 |
| 2 | 일본 | 17 |
| 3 | 영국 | 4 |
| 4 | 한국 | 15 |
| 5 | 독일 | 1 |
| 6 | 중국 | 10 |
| 7 | 캐나다 | 9 |

# 추석 연휴, 전국 보건소 쉬지 않는다

## 신종플루 비상진료체계 가동

모두가 '고향 앞으로' 향하는 추석이 다가오면서 인구 대이동에 따른 신종플루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추석대책을 수립, 연휴 기간 중 환자 발생 등 긴급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중시설에 대한 신종플루 방역이 강화되고 있다. 9월 13일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공간살균기를 통해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

추석 연휴 동안 신종플루(H1N1) 거점병원은 물론 응급의료기관에도 항바이러스제가 공급된다. 전국의 모든 보건소가 매일 문을 열고, 농어촌 주민들을 위한 보건지소도 3분의 1씩 교대로 진료에 나서는 등 추석 연휴 기간 중 신종플루 대응 의료체계가 쉼 없이 운영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올 추석 연휴(10월 2~4일) 비상진료체계를 마련하고 인구 대이동에 따른 신종플루 확산을 차단하는 범정부 차원의 추석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연휴 기간에도 신종플루 의심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상의료체계를 운영한다. 먼저 전국의 모든 응급의료기관(4백54곳)에서 24시간 신종플루 의심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운영을 강화하고 항바이러스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휴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거점병원이 아닌 응급의료기관에도 항바이러스제를 원내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3백26곳은 거점병원이지만 작은 규모의 지역 응급의료기관 등 1백28곳은 거점병원이 아니다.

또 전국의 모든 보건소(2백53곳)가 매일 진료를 실시하고,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 보건지소 1천3백여 곳도 매일 3곳 중 1곳이 돌아가며 진료를 하게 된다. 거점약국(1천3백31곳)도 추석 때까지 2천개 수준까지 추가로 지정하고 당번약국을 정해 연휴 기간 중 매일 최소한 6백개 이상 거점약국을 운영할 계획이다.

###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항바이러스제 공급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연휴 기간 중에 있을 환자 증가에 대비, 충분한 양의 항바이러스제를 미리 거점병원과 거점약국 등에 공급하고 거점병원, 약국당 2백명분의 비축량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지역별, 일자별, 시간대별로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약국 등을 9월 28일(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mw.go.kr), 중앙응급의료센터(nemc.go.kr), 질병관리본부(cdc.go.kr)와 각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또한 추석 기간 중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신종플루의 확산이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신종플루 확산 차단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9월 18일 신종플루로 확진받은 9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데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는 대중교통이 많이 이용된다는 점에서 추석 연휴 전후로 신종플루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버스, 기차, 비행기 등 밀폐되고 환기가 덜 되는 공간은 바이러스 전파의 최적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차,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과 역,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특별소독, 종사자 위생교육, 개인위생용품 비치 등 방역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고궁, 박물관 등의 행사와 공연, 축제도 위생용품 비치 등 방역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톨게이트, 휴게소 등에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위생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모국어로 된 예방수칙을 배부하며 단체 생활을 하는 군에서는 휴가나 외박 전후 위생교육과 발열 감시를 강화하는 등 범정부적인 신종플루 확산 방지 노력을 펼친다.

### 역·터미널·휴게소 등 방역대책 철저히 수립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권준욱 홍보과장은 "지금까지 신종플루 치사율이 일반적인 계절독감 수준(0.1퍼센트) 이하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며 "다만 인구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 기간 중 확산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산 신종플루 백신의 1차 임상시험 결과 큰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녹십자의 신종플루 백신 'GC1115'의 1차 임상시험 부작용의 중간보고를 받은 결과 이상반응률은 9.7퍼센트였으며 주로 경미한 증상이었다고 9월 18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녹십자가 9월 7일부터 10일까지 3개 병원에서 성인 4백74명에게 임상시험용 신종플루 백신 1차 접종을 실시한 결과 1차 부작용 조사에서 특별한 이상반응은 없었으며 경미한 부작용의 빈도는 해외 신종플루 백신 임상시험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신종플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업재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9월 17일 신종플루 감염자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외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신종플루에 걸리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보건의료 종사자와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경우도 업무 수행과정에서 신종플루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것이 명백하면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G

글 · 박경아 기자

**보건복지콜센터** Tel **129** **응급의료정보센터** Tel **133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Tel **1577-1000**

격리병상엔 유리 차단막… 4개 과 협진 시스템 구축

## "신종플루 100% 퇴치에 만전"

9월 2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경기 고양시의 관동의대 명지병원을 방문했다. 신종플루 확산으로 발걸음이 분주한 전 장관이 명지병원을 찾은 것은 이곳이 신종플루 대응 모범 사례로 꼽히는 거점병원이기 때문이다.

전 장관은 이날 "신종플루에 대해 모범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명지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감사한다"며 "명지병원의 노하우를 전국 모든 병원에 전파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신종플루의 병원 내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명지병원의 신종플루 진료 완벽 대응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명지병원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거점병원으로 지정되자 지난 8월 26일 신종플루 대응 진료본부 발족식을 갖고 신관 1층에 일반 환자와 격리해 치료할 수 있는 신종플루 대응 진료센터를 설치, 24시간 진료체계를 갖췄다. 2차 감염 차단을 위해 의료진 등 전 직원과 환자, 보호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다.

신종플루 대응 진료센터는 일반 환자들과 다른 출입구를 사용한다. 이곳은 성인과 소아 · 청소년으로 분리된 2개의 진료실과 각각의 대기실, 원무 접수창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의 협진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명지병원은 이와 함께 신관 5층 병동 일부에 유리로 된 차단막을 설치, 14병상을 격리병동으로 지정했고 중환자실 4병상도 격리병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외래 진료센터에서 5층 격리병동까지 전용 통로와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일반인과의 접촉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신종플루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매일 오후 6시면 신종플루 상황회의를 갖는다.

이왕준 명지병원 의료원장은 "신종플루에 감염되거나 의심환자가 된 것도 서러운데 천막이나 컨테이너 같은 임시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제대로 된 진료실과 격리병동, 전용 엘리베이터 등의 진료 시스템을 마련하게 됐다"며 "지역 내 유일한 대학병원으로서 신종플루 1백 퍼센트 퇴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 신관에 마련된 신종플루 대응 진료센터.



기획특집

# 우리 몸엔 우리 것 농특산물, 명품 시대를 열다

고장의 특성과 전통을 살린 특산품들이 전국 각지에서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횡성한우, 양양송이, 임실치즈, 고창복분자주, 상주곶감 등 우수한 품질과 차별화 전략으로 명품 반열에 오른 특산품들은 지역축제와 연계해 고장을 알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자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들의 질주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지역 특산품은 국내 시장을 넘어 수출 활로를 개척하고,
관광 및 투자유치에도 기여하는 우리 농어촌 살리기의 핵심동력으로 거듭나고 있다.



# 특산품 개발로 대박 어부·억대 농부

특산품 시장이 활황이다. 과거에는 추석 등 명절에만 반짝 특수를 누리던 특산품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웰빙' '친환경' 트렌드의 영향과 정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노력이 함께 빚어낸 특산품 개발 붐으로 농어민들도 이젠 억대 소득의 꿈을 실현하게 됐다.


연합

강원 양양군은 송이축제를 문화행사와 연계한 체험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송이 수출 촉진과 관광 활성화를 이뤘다.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소득이 늘어나면서 웰빙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에는 영양공급 외에 질병 치료와 미용 효과까지 있는 기능성 식품 시장도 급성장하는 추세다. 더욱이 사회적 이익과 후대를 위한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한 녹색소비가 새로운 트렌드로 정착하면서 특산품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특산품은 원산지나 품질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안전하고 우수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신토불이(身土不二)' 특산품 중에는 가격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프랑스 명품 와인 '로마네 콩티'처럼 명품 반열에 오른 것들도 있다. 일본에 수출되는 양양송이, 야생녹차로 유명한 경남 하동군이 생산하는 1천3백만원짜리 최고급 녹차,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고창복분자주는 대표적인 예다.

횡성한우, 상주곶감, 부안뽕주, 보성녹차, 함평복분자와인, 임실치즈 등도 지역에 부와 명성을 동시에 안겨준 효자 상품으로 꼽힌다. 고장의 이름과 함께 브랜드화한 이 특산품들은 뛰어난 품질과 차별화 전략으로 판로를 개척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 양양군 송이로 30억원… 해외 판로 개척도

조선시대부터 한우로 유명했던 강원 횡성군은 1995년부터 '횡성한우 명품화 계획'을 추진해 횡성한우를 명품으로 키워냈다. 6개월령 수소를 거세해 청정 환경에서 풀을 먹여 키운 횡성한우는 연간 4백34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또한 횡성한우 축제와 연계해 1백34억3천만원의 부가소득과 1천7백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창출하고 있다.

강원 양양군은 연간 50톤의 송이를 출하해 약 30억원의 농외

소득을 올리고 있다. 2005년 소비자 인지도 조사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양양송이는 2006년 버섯 부문에서 산림청 지리적 표시제 제1호로 등록돼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 지리적 표시제는 농산물의 명성과 품질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정부가 인정하는 제도다.

## 특산품 연구개발·인프라 구축 등에 1조원 지원

송이 최대 수입국인 일본에서 양양송이의 인기는 대단하다. 덕분에 수출량은 물론 양양송이축제를 찾는 일본 관광객도 해마다 늘고 있다. 양양군은 송이축제를 문화행사와 연계한 패키지 체험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켰다.

전북 고창군은 1960년 전국 최초로 복분자를 재배하기 시작해 연간 6천 톤을 생산하고 있다. 황토에서 해풍을 맞으며 자라 향미가 풍부하고 당도가 높은 고창 복분자는 술, 한과, 잼, 죽염 등으로 가공돼 일본, 중국, 미국, 호주, 동남아로 수출된다.

전남 함평군도 함평천지복분자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연간 2백62킬로리터의 복분자와인 '레드마운틴'을 생산하고 있다. 대만, 인도네시아 등지로 수출되는 레드마운틴은 연간 3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전국 뽕나무 재배 면적의 23퍼센트를 차지하는 전북 부안군에서는 오디를 원료로 한 '뽕주'로 외화를 벌어들인다. 부안에서 생산되는 뽕나무 열매인 참뽕오디는 예부터 머리를 검게 하는 자양제로, 성인병과 노화를 막는 생약으로 사용됐다. 부안군은 3개 업체를 통해 2007년 중국에 6천만 달러어치의 뽕주를 수출했고, 지난해부터는 캐나다와 일본 수출도 추진 중이다. 또한 오디, 뽕잎, 상백피, 누에, 동충하초 등의 기능성이 크게 부각되자 이를 원료로 한 다양한 가공식품도 생산하고 있다.

경북 상주시는 곶감과 '명실상감한우'로 경쟁력을 키웠다. 임금님 진상품이었던 상주곶감은 현재 2천2백여 농가에서 생산해 국내는 물론 해외 각지로 팔려나간다. 지난해 생산량은 7천4백78톤을 기록했다. 시중가로 1천8백여 억원어치다. 상주시는 또 곶감 생산 과정에서 버려지는 껍질로 특허사료도 개발해냈다. 이 사료를 먹고 자란 것이 명실상감한우다. 건강하고 안전한 브랜드 한우로 품질 인증을 받은 명실상감한우는 지난해 1천7백36마리가 출하됐으며 81.5퍼센트가 1등급 이상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지자체가 직접 나서 개발과 관리, 유통에까지 공을 들이는 특산품들은 판매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친환경, 웰빙 트렌드의 영향만은 아니다. 여기에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어촌공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농촌 활력 증진사업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지역 주도형 발전을 추구하는 농촌 활력 증진사업은 농특산품의 명품화, 클러스터화,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 농촌경제를 살리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신활력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특화품목 육성사업 등 유사한 3개 정책 사업을 농촌 활력 증진사업으로 통합해 2010년까지 1백42개 지자체에 약 1조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예산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산업 육성 목표를 수립하고 인력 양성, 연구개발(R&D), 마케팅, 향토기업 창업 지원, 인프라구축 등에 쓰도록 하고 있다.


동아DB



조영철 기자

상주곶감은 생산 농가에 고소득을 가져다주고 있다(위). 천안 특산품인 거봉포도로 만든 와인.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 지원과 포상도 한다. 충북 영동군(포도, 국악 연계 영동마케팅), 전북 부안군(오디, 뽕 클러스터), 전북 장수군(한우 클러스터), 경북 상주시(곶감, 한우 명품화) 등 30개 시군이 지난 3월 우수 지자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상품성이 높은 특산품의 경우 여러 지자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하는 경향이 심화되면서 브랜드가 난립하고 있다. 농약 사용이 줄지 않는 점도 문제다. 1990년부터 2007년까지 경지 면적은 23퍼센트 감소했지만 농약 사용량은 3퍼센트 감소에 불과했다. 연안 해안의 백화현상도 확산되고 있다. 수입 농산품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고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명품으로 거듭나려면 이 같은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식품산업 전문가들은 "웰빙 트렌드에 맞는 저염화, 천연첨가물 사용, 건강기능성 강화 등의 품질 개선과 함께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신제품 개발에도 힘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이정희 교수는 "특산품 전문 직거래 장터와 로컬 푸드를 취급하는 파머스마켓(Farmer's Market)을 확대하는 등 경쟁력 있는 유통망을 개척하고, 품질은 물론 포장용기까지 명품화한다면 우리나라가 특산품 산업을 통한 경제부국을 이룰 날도 머지않았다"고 전망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 향토 브랜드 세계화 정부가 나섰다

프랑스 보르도 와인이 세계시장을 석권한 것은 철저한 원산지 표시와 품질관리 때문이다.
우리도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특색과 여건에 맞는 특산품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농축수산물을 최고의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도 발 벗고 나섰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9월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 및 공공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6천명에게 우리 농수산식품 추석선물세트 구매를 요청하는 서한과 안내책자를 발송했다. 안내책자는 각종 농식품대전 수상 및 출품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지자체 등이 추천한 농수산식품 정보를 담고 있다.

민승규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도 9월 10일 전경련, 대기업,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직접 방문해 기업들이 추석선물로 우리 농수산물을 적극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우리 농수산식품 세일즈에 나섰다. 민 차관은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만나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나눔과 배려의 경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을 배려해 우리 농수산식품 선물세트를 사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9월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기업들이 우리 농산물을 추석선물로 많이 돌렸으면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 산업계-학계-정부 네트워크 조직 ‘광역 클러스터’ 지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3퍼센트. 농가소득은 가구당 3천2백30만원이지만 이 중 농업소득은 37퍼센트인 1천2백만원에 불과하다. 지자체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외국 농산물 수입 증가, 농자재 가격 폭등, 농산물 가격 정체 등으로 농어민들의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 특색과 여건에 맞는 농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광역클러스터 지원사업, 특화품목 육성사업, 농산물 브랜드육성 지원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은 지역 특산품 육성과 관련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사업이다.

광역클러스터 지원사업은 지역 특화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주체를 중심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소, 정부기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특산품을 육성하고 지역농업을 혁신하는 사업이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보성 녹차 등 20개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서산 생강 등 22개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제주 넙치 등 12개 사업단을 선정했고, 2016년까지 1백 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다.

광역클러스터사업단 참여 기업의 매출액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지역대학인 동양대를 중심으로 8백80가구의 인삼농가, 89개의 가공업체, 2백21개의 유통업체, 인삼시험장, 경북 영주시가 협력체계를 구축한 풍기인삼클러스터사업단의 경우 인삼 수출 실적이 2005년 4억8천만원에서 2008년 8억9천2백만원으로 85퍼센트 증가했고, 참여업체 매출액은 2005년 9백50억원에서 1천5백20억원으로 60퍼센트 늘어났다.

고승태 풍기인삼클러스터사업단장은 “풍기인삼이라는 전통 브랜드가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새로운 브랜드로 안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화품목 육성사업은 농어촌지역에 존재하는 농축수산물을 기술, 지식, 유통을 활용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 브랜드로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는 사업이다.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산물 가공업체에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4백4개 사업에 1천2백73억원을 지원한다.

농산물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 유통업체 성장 등에 대응해 우수 농산물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식량작물, 밭작물, 원예작물, 과수작물, 축산물 등 5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 김기주 사무관은 “현재 농산품 브랜드가 난립하고 있어 소비자와 유통업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






국내 자연치즈 생산량의 30퍼센트를 차지하는 임실치즈(위).
풍기인삼클러스터는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청정 인삼을 생산함으로써 외국삼의 공세를 극복하고 있다.



보성 녹차를 먹여서 키운 돼지고기 보성녹돈포크는 전남 대표 브랜드 중 하나다.

며 "연중 공급체계를 갖추면서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 구입해도 품질이 일관되게 보장되는 것만이 진정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사과, 배, 단감, 감귤 공동 브랜드인 '썬플러스'와 장호원, 경기동부과수, 감곡, 음성 농협의 복숭아 연합 브랜드인 '햇사레' 등은 명품 브랜드로 발돋움하고 있는 특산품이다.

향토산업 육성사업도 농어촌지역의 유·무형 향토자원을 1, 2, 3차산업이 연계된 다양한 복합산업으로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강원 홍천의 잣, 충북 보은의 황토대추, 충남 논산의 강경젓갈 등 2007년부터 매년 30개씩 2013년까지 2백 개의 향토자원을 산업화할 예정이다.

**농업 발전은 소비자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 농촌진흥청은 안전성, 웰빙, 기능성을 강화한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또한 '푸른 농촌 희망 찾기' 운동의 하나로 각 지역의 농산물을 특산품화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 발전이 소비자의 수요와 소비 행태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고 안전성, 웰빙, 기능성을 강화한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탑라이스 생산시범단지 육성,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시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최고 품질의 과일을 생산하기 위한 탑 프루트 생산시범단지 육성, 고품질 벌꿀 생산성 향상 시범, 지역음식을 특화하는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또한 '푸른 농촌 희망 찾기' 운동의 하나로 각 지역의 농산물을 생산 가공해서 특산품화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03년까지 농촌여성 일감찾기 사업으로 1백69개소를 지원했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1백 개소의 특산품 창업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 향토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

이를 통해 경북 의성의 경우 사과, 마늘, 쌀, 고추 등 지역대표 농산물을 이용한 48종의 제품을 '가을빛 고운'이라는 통합 브랜드로 생산하고 있으며, 경남 함안 토우리식품은 지역에서 생산된 콩으로 냄새 없는 '5분 청국장'을 개발해 중국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

농업진흥청 농촌자원과 박경숙 지도관은 "단순히 사업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품질지도, 경영관리, 기술지원, 홍보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지역 농산물과 여성의 솜씨를 연계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보르도 와인이 세계시장을 석권하게 된 데는 철저한 원산지 표시와 품질 관리가 뒷받침이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별로 특산품 브랜드화가 한창이다. 철저한 관리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나아가 FTA 개방 환경 속에서 농가 경쟁력 향상 대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G

글 · 이혜련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 쌀로 만든 막걸리… 국수에 건빵까지

# 쌀의 변신… 거침없이 하이킥!

'쌀=밥'이란 고정관념은 이제 버릴 때다. 다양해진 식습관에 따라 쌀의 무한 변신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브랜드 쌀, 기능성 쌀을 비롯해 쌀가루로 변신해 무궁무진한 식품으로 진화된 쌀을 만나보자.

회사원 김지연(가명 · 30) 씨는 아침마다 밥 대신 토스트를 먹는다. 점심에는 스파게티나 피자 등을 사먹고, 저녁때는 회식으로 고깃집을 찾는다. 김 씨의 식습관만 봐도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시대는 지났다. 다양한 주식이 등장한 만큼 우리 전래의 주식이던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10년 전 1인당 연평균 쌀 소비량은 약 1백6킬로그램이었지만 지난해는 75킬로그램으로 3분의 1가량 줄었다.

이처럼 2000년대 이후 달라진 식생활과 쌀 수입 개방으로 쌀 생산과잉 시대를 맞이했다. 이에 쌀이 다시 사랑받기 위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벼의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더한 쌀 특산품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것이다.

1980~90년대는 쌀을 값싼 정부미와 고급 일반미로 구분하던 시대였다. 정부미를 주식으로 삼던 대다수 국민에게 밥맛을 따지는 것은 사치에 가까웠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일반미의 브랜드화가 시작되면서 말 그대로 '골라 먹는 재미'가 생겼다.

하지만 전국 1천8백여 곳에서 생산되는 쌀들이 브랜드화되기 시작하면서 지역 쌀의 품질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졌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역 쌀의 품질을 높이고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50개의 쌀을 꼼꼼히 평가해 12개의 우수 브랜드 쌀을 뽑는다.




농촌진흥청 제공

**지난 8월 말 열린 '농특산물 아이디어 상품 베스트 10' 행사에 출품된 쌀 특산품. 홍국쌀로 만든 홍국누룽지(사진 왼쪽)와 무농약 쌀로 만들어 찬물에도 잘 녹는 아이스 누룽지는 각각 최우수상과 아이디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선정된 브랜드 쌀을 보면 질적으로 높은 성장을 보였다. 녹차티백을 포장 안에 넣어 방습, 방취, 향미 기능을 더한 전남 보성군의 '녹차미인 보성쌀', 왕우렁이 농법을 활용해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은 충북 청원군의 '청원생명쌀', 전자태그(RFID)를 이용한 쌀 이력추적 시스템으로 수확한 벼의 건조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개별상품 단위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경기 평택시 '슈퍼오닝쌀' 등 쌀 자체에 지역 특산품을 접목하거나 친환경농법,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것이다.

**쌀의 무한 변신을 돕는 쌀 가공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쌀국수, 쌀라면 등 쌀가루로 만든 가공식품으로 밀가루에 내줬던 면류시장을 탈환해 쌀 소비량을 늘리는 한편, 공공 부문부터 밀가루 식품을 쌀 가공식품으로 대체하고 쌀가루 제분공장 설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이주영 서기관은 "쌀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 2013년까지 시군 단위 대표 브랜드 쌀 1백 개를 육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브랜드 쌀의 판매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급 비율도 50퍼센트까지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브랜드 쌀뿐만 아니라 각종 기능을 향상시킨 기능성 쌀도 잇따라 개발되고 있다. 2007년 전남 무안군은 한국식품연구원과 공동으로 지역 특산품인 양파와 약재 등에 함유된 성분을 추출해 벼에 코팅하는 방법으로 혈당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는 '절당미'를 개발해 특허등록을 하고 현재 위탁업체에서 판매 중이다.

농촌진흥청도 일명 다이어트 쌀이라고 불리는 '감귤쌀'을 5년 간의 연구 끝에 탄생시켰다. 감귤쌀은 감귤에 들어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쌀에 코팅해 만든 것으로 고지혈증과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다. 여기에 지방 흡수를 45퍼센트 이상 억제해 비만을 막는다. 또 포도당과 자당 등 당 함량이 보통 쌀보다 6.4배 높아 단맛이 강한 '단미벼'와 항산화 작용으로 인체 노화를 방지하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보석흑찰벼'를 개발해 보급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농촌진흥청은 전통주 제조업체인 국순당과 함께 3년간 공동연구를 통해 지난해 5월 양조용으로 적합한 '설갱




정경택 기자

각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쌀은 친환경 농법, 지역 특산품 접목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밥맛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벼'를 개발했다. 농촌진흥청 답작과 김연규 과장은 "설갱벼 개발로 전통주, 발효쌀, 식초 등 다양한 형태의 쌀 특산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쌀 소비량은 줄고 재고량은 늘어나는 실정이다. 국내 식량용 쌀 수요는 올해 3백70만 톤으로 2000년에 비하면 72만 톤 감소했다. 국내 쌀 재고량은 지난 6월 말 기준 2백77만 톤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처럼 밥에서 이탈한 쌀 수요를 특산품이나 가공제품으로 대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 지방 흡수 막는 등 고기능성 쌀 잇따라 출하

이에 각 지자체들은 쌀을 이용한 특산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강원 철원군은 지난해부터 군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지역 특산품인 '철원 오대쌀'을 이용해 쌀 특산품을 개발하고 있다. 쌀국수, 쌀떡 등에 이어 최근엔 쌀아이스크림까지 만들었다. 철원군청 농업기술과 연구개발팀 김미경 씨는 "개발된 쌀 특산품 중 쌀국수의 경우 업체에 기술을 이전해 판매하고 있으며 쌀아이스크림은 좀 더 보완한 뒤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쌀 특산품으로 잘 알려진 막걸리에 지역 특산품을 결합한 마늘막걸리도 만들어졌다. 경남 남해군농업기술센터와 지역 업체가 마늘과 쌀을 결합한 마늘막걸리를 개발한 것이다. 9월 초 출시된 마늘막걸리는 남해에서 생산되는 생마늘과 남해산 쌀을 함유해 지역 특산품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강원 원주시 '쌀찐빵', 경기 이천시 '쌀한과', 경기 안성시 '쌀송편' 등 쌀을 이용한 지역 특산품을 만들어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쌀 특산품과 더불어 쌀의 무한 변신을 돕는 쌀 가공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월 '쌀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쌀국수, 쌀라면 등 쌀가루로 만든 가공식품으로 밀가루에 내줬던 면류시장을 탈환해 쌀 소비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쌀 생산량의 6퍼센트만 가공용 쌀로 사용되는 것을 2012년엔 10퍼센트까지 늘릴 계획이다. 군, 경찰, 학교 급식 등 공공 부문부터 밀가루 식품을 쌀건빵, 쌀자장면 등 쌀 가공식품으로 대체하고 쌀가루 대량생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쌀가루 제분공장 설립도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쌀가공식품협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쌀 함유량이 15퍼센트 이상인 제품 가운데 '우수 쌀가공 톱10'을 선정해 발표했다. 송학식품의 '꼼꼬미 쌀떡볶이', 성찬식품의 '깜밥 누룽지탕', 태평양물산의 '우리쌀 핫케익믹스' 등이 선정돼 다양한 쌀 가공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렸다.

농촌진흥청도 2002년부터 매년 '농특산물 아이디어 상품을 선정하는 베스트 10' 행사를 개최해 쌀로 만든 아이디어 특산품을 소개하고 있다. 올해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입주 업체인 한스바이오가 개발한, 콜레스테롤 억제 기능과 뇌세포 대사 활성화 기능이 있는 홍국쌀이 첨가된 '홍국누룽지'와 '홍국사과스낵'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G

글 · 김민지 기자




정경택 기자

한우를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경북 상주의 한우 농장.

# 곰탕 기내식 등 한우 세계화 도전

한우는 비교적 가격이 비싼데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로 정착했다. 한국인이 가치를 인정한 한우, 이젠 국내를 넘어 세계적 브랜드가 될 차례다. 한우의 세계화 노력을 살폈다.

“미국 쇠고기보다 안전하고 일본 쇠고기보다 싼 한우의 경쟁력을 활용해 일본과 중국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쇠고기를 선호하는 음식문화도 우리와 비슷하기에 도전해볼 만합니다. 특히 중국은 6천만명이나 되는 부유층을 집중 공략하면 한우를 수출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국내 쇠고기 시장이 타격을 입고 있는 요즘 한우 농가가 살아날 방법은 한우를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 한우 재료로 한 한식 세계화도 중요

세계 시장에서 한우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전문가들은 “한우가 세계적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생산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생산과 도축, 가공, 유통, 판매를 모두 아우르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한우 농가의 조직화가 필수”라고 한다. 현재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엑셀, 몽포드 같은 다국적기업은 인공위성을 통해 전 세계의 곡물시장과 고기시장을 내려다보며 생산 및 수출 작업에 수많은 전문가를 동원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 농가의 생산·판매 체계로는 이들과의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한우의 세계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각 지자체는 횡성한우, 강화섬 약쑥한우, 전남 녹색한우 등 자체 브랜드를 만들고 관리해 한우의 고급화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도 한우 농가 협업체 구성(1백40개소), 시도 단위 광역한우사업단 구성(12개소), 이들 생산조직과 연계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6월부터 시행된 한우 쇠고기 이력제는 한우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어 한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더욱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우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우를 재료로 한 한식의 세계화도 중요하다.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진 한우 불고기 외에도 갈비구이, 곰탕 등을 세계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한우전문가와 요리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우업체인 다하누는 자체 개발한 사골곰탕을 대한항공 국제선 1등석 기내식으로 납품하는 등 조금씩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G

글 · 백경선 객원기자

# 막걸리, 잠자던 전통주 시장을 깨우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8월 26일 '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규제 대상으로만 여겨왔던 술을 국가 주요 산업으로 키워나감으로써 우리 술의 세계화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일본의 20, 30대 여성들에게 막걸리의 인기는 대단하다. 자그마치 30종류의 막걸리를 마실 수 있는 도쿄 신주쿠의 한 막걸리 바는 매일 밤 젊은 여성들로 가득하다. 일본의 유명 백화점에서도 작은 유리병에 담긴 막걸리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까지 막걸리가 크게 인기를 끌면서 전통주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때맞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6차 회의에서 '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그동안 규제 대상으로만 여겨왔던 술을 주요 산업으로 키워나감으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주를 육성해 세계인이 사랑하는 술로 만들겠다"며 "2017년까지 우리 술 수출을 지금보다 5배가량 많은 1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표 브랜드 육성을 통한 전통주의 세계화, 우리 술의 품질 고급화, 전통주 복원, 농업과 동반 발전 등의 전략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전통주의 세계화를 위해 주류 품평회를 개최해 주종별로 3대 대표 브랜드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들 대표 브랜드에 대해서는 국제주류박람회 출품 경비, 시장 개척비, 물류비, 판촉 및 홍보비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식 세계화 프로젝트와 연계해 한식문화체험관에 우리 술 시음·전시 장소를 추가하고, 한식당과 전통주 전문주점의 해외 동반진출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술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는 주류 성분 표시제와 주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며, 이와 함께 품질인증제와 지리적 표시인증제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사라진 수많은 전통주 중에서 50종을 2012년까지 복원할 계획이다.

## 주종별 대표 브랜드 육성을 통해 전통주 세계화

또한 지역 특산품과 연계한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고 제조장, 원료 재배농가, 시음 판매장 등을 관광코스로 개발해 우리 술 축제를 활성화하는 등 술 산업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통주 산업이 농업 및 지역발전을 견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기관들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 술의 품질 개선과 산업화를 위한 '우리 술 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우리 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머지않아 프랑스의 코냑, 독일의 맥주, 일본의 사케와 같은 세계적인 술이 우리나라에도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G

글 · 백경선 객원기자



조영철 기자

세계 최초의 술 종합 박물관 리쿼리움 민속주관에 전시된 우리나라 전통주.

파프리카·버섯·국화·장미…

# 농식품 수출 53억 달러 "문제없어요"

올해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 목표는 53억 달러.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올 상반기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목표치에 근접했으며, 수출 국가나 품목이 다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청신호다. 수출농산물 공동 브랜드 '휘모리'의 약진도 눈에 띈다.

일본시장에서 한국산 파프리카가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국산 파프리카는 현재 일본 전체 파프리카 시장의 6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30퍼센트는 (주)농산무역의 파프리카다.

농산무역은 1999년 전북 김제의 파프리카 시설재배농가 80곳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생산자 법인이다. 앞서 1996년부터 농산무역 조기심 대표(49)가 시작한 파프리카 대일(對日) 수출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자 주변 농가들이 참여 의사를 밝혀 법인이 설립됐고, 현재 참여 농가는 95곳으로 늘었다. 이들 농가가 온실 42곳에서 생산하는 파프리카는 2004년 가을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농산물 공동 브랜드인 'Whimori(휘모리)'라는 이름으로 수출되고 있다. 파프리카 단일품목으로 높은 매출액을 올린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08년 2백16억원, 올해는 불황 속에서도 지난해보다 늘어난 2백50억원의 매출 목표가 무난히 달성될 전망이다.




'파프리카의 대모' 조기심 대표.

농수산물유통공사 제공

농산무역 사례에서 보듯 '휘모리'는 한국 농산품 수출의 효자 브랜드다. 농수산물유통공사 원예수출부에 따르면 휘모리로 2007년 1천4백36만여 달러를 수출한 뒤 2008년에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 때문에 9백84만 달러로 주춤했으나, 올해는 7월까지 이미 지난 한 해 실적을 훌쩍 뛰어넘는 1천4백9만여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농식품 역시 품질과 신뢰가 성공을 좌우한다. 수출 성공 사례의 공통점은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품종을 공급하고 지속적인 신뢰를 쌓았다는 것'이다. 이 대목을 명심한다면 한국 농식품 수출의 앞날은 밝을 것이다.**

2004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출 전문 브랜드로 출범시킨 휘모리는 수출에 유리한 고품질 농산물을 선정해 품질 개선비, 수출 물류비, 바이어 초청 행사 등 국내외 홍보를 지원한다.

현재 휘모리에 선정된 품목은 파프리카, 국화, 배, 장미, 새송이버섯, 김치 등 6가지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선정된 8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 중에서 파프리카, 국화, 장미는 전량 일본에 수출되고 있으며, 올해부터 휘모리 품목에 추가된 새송이버섯이 네덜란드, 싱가포르, 미국 등에 수출되면서 시장이 다변화하는 추세다.

### 공동 브랜드 '휘모리' 올 7월까지 1409만 달러 수출 성과

한편 농림수산식품부가 설정한 올해 농식품 수출 목표는 53억 달러다. 지난해 수출액 44억 달러보다 22.8퍼센트 높게 잡은 수치다. 올해 7월까지 수출액은 24억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퍼센트 감소한 수준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과실, 화훼, 오징어, 참치 등의 품목

수출이 감소한 게 원인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수출이 22.5퍼센트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농식품 수출 분야의 1퍼센트 감소 폭은 미미한 편이다. 올 상반기 국가별 수출 비중은 일본이 가장 높고(34.6퍼센트), 아세안 국가(10.8퍼센트), 중국(10.4퍼센트), 미국(10.2퍼센트), 러시아(4.6퍼센트), 홍콩과 유럽연합 국가(각각 4.4퍼센트) 순이다. 수출 국가나 품목이 다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청신호다.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 국가 순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불모지나 다름없던 유럽연합 국가에 대한 한국 농식품 수출도 서서히 물꼬가 트이고 있다. 2005년 네덜란드를 필두로 벨기에, 프랑스 등 10여 개국에 진출한 그린합명회사가 그 선두주자다. 유럽 전체 버섯 소비량의 98퍼센트를 양송이버섯이 차지하는 시장 상황에도 그린합명회사는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송이버섯 등을 소개해 2007년 4백11만 달러, 2008년 7백93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올 수출 목표는 1천만 달러선. 수출 국가도 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세계 15개국으로 늘었다.

### 지방자치단체도 브랜드 개발 박차… 해외 진출 모색

“2005년부터 전 세계 식품박람회에 빠짐없이 참가, 전시 부스에서 불고기나 샐러드와 함께 버섯 시식행사를 하면서 유럽 바이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음식은 문화이기 때문에 입맛을 길들이는 데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홍보한 결과죠.”

1983년 경북 청도군에서 밑천 3백만원으로 버섯농사를 시작해 국내 농산품 수출 대표주자로 떠오른 그린합명회사 박희주(55) 사장의 말이다. 이 회사의 새송이버섯은 올해부터 ‘휘모리’ 브랜드로 수출되면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받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공동 브랜드 개발과 지원 붐도 일고 있다. 지금까지 지자체의 공동 브랜드는 내수시장을 주로 겨냥했는데, 최근에는 해외시장에도 진출하는 추세다. 전라남도에서 13개 업체가 참여해 만든 공동 브랜드인 ‘남도미향’이 한 예다. 남도미향은 올여름 미국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에서 브랜드 홍보와 수출 판촉 행사에 나서 2억5천만원의 판매 실적 외에 5억2천만원어치를 추가 주문받았다. 경상남도의 경우 하반기에 국제 농산품엑스포에 참가하는 등 올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농산품 수출 목표치 10억 달러 달성에 주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농식품 역시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품질과 신뢰가 성공을 좌우한다.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행한 〈수출路 답을 찾다〉에 소개된 농식품 수출 성공 사례 10곳의 공통점은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품종을 공급하고, 지속적인 신뢰를 쌓았다는 것’이다. 이 대목을 명심한다면 한국 농식품 수출의 앞날은 더욱 밝을 것이다. G

글 · 최은숙 기자




농수산물유통공사 제공

지난 7월 말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서울 양재동에서 개최한 ‘2009 Buy Korean Food’ 행사에서 한 업체가 해외 바이어와 상담을 하고 있다.

농산무역 조기심 대표

### “휘모리 파프리카로 일본시장 석권”

농산무역 조기심 대표가 파프리카 생산 및 수출업에 뛰어든 지 14년째. 지금은 ‘파프리카의 대모’로 불리지만, 그가 처음부터 파프리카 농사를 지었던 것은 아니다. 의류사업을 하던 조 대표가 파프리카에 눈길을 준 것은 1994년 일본 도쿄의 한 식품 코너에서였다.

“네덜란드 수입산이라는데 색깔이 화려해서 눈에 확 띄었어요. 가격이 비싸서 채산성이 높겠다 싶었는데, 수박 농사를 짓던 남동생이 때마침 정부 지원을 받아 유리온실을 짓는다고 해서 파프리카를 권했죠.”

조 대표도 의류사업을 접고 1996년부터 파프리카 수출업에 뛰어들었다. 1999년 설립한 농산무역의 노하우는 수출 길을 뚫으려는 국내 농특산품 업체에겐 교과서나 다름없다. 95개 농가를 규합한 기업형 농업으로 첨단 재배시설에 아낌없이 투자해 거대 수출 물량을 확보했다. 또한 무당벌레 같은 천적을 활용한 유기농으로 생산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현지 소비층의 기호에 맞는 농산품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소비자들은 작고 예쁘고 깨끗한 파프리카를 선호해요. 포장도 정성스러워 보여야 합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동브랜드 ‘휘모리’ 덕도 봤다. 휘모리 로고와 포장박스를 사용하고 현지 홍보를 지원받은 덕에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진 것이다. 지난 7월 농업진흥청에서 출범시킨 1백42명의 농업여성인 모임인 ‘여성농업CEO연합회’에 참여한 조 대표는 “지금도 정부 지원을 많이 받고 있지만, 향후 지속적인 수출 지원 시스템이 가동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산무역은 일본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작고 예쁜 파프리카를 수출한다.

### 3000개 에키벤, 미야자키 망고, 북해도 멜론

# 특산품 왕국 일본에서 배운다

일본을 여행하다 보면 두 가지 사실에 깜짝 놀랄 때가 있다. 먼저 일본의 넓은 국토와 다양한 지형에 한 번 놀라게 된다. 일본 국토를 한국만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본은 남한 면적의 네 배에 이르고 기후도 아열대성에서 극지방 기후까지 다양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다양한 지역의 풍토에 맞게 그들 고유의 특산물을 기막히게 브랜드로 만들어 상품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아DB

일본은 각 지역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지역특산품이 많은 나라다.
사진은 서울에서 열린 일본식품초대전.

### | 네모난 도시락 '에키벤'에 담긴 지역문화 |

일본의 '에키벤'은 지역 특산물을 상품화한 대표적인 사례다. 에키벤은 '에키벤토'의 줄임말로 기차역이나 차내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을 말한다. 에키벤은 한국에서 기차여행을 하면서 먹는 '도시락'과는 차원이 다르다. 예컨대 홋카이도의 모리역에서 파는 '모리노이카메시'는 이 지역에서만 재배하는 특산물인 쌀을, 도야마 지역의 '마쓰노스시'는 연어의 한 종류인 '마쓰'를 도시락에 담아내는 식이다.

각 지방의 특산물이나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맛을 내기 때문에 에키벤을 맛보는 일은 그 지역의 명물,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에키벤을 먹어 보지 않고는 그 지방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는 말도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일본 전국에는 3천 종류가 넘는 에키벤이 있다. 같은 지역 에키벤이라도 철마다 메뉴가 달라져 실제 가짓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 일본인들에게 에키벤은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닌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자리를 굳혔다. 네다섯 시간이나 걸리는 지역을 일부러 찾아가 에키벤을 맛보고 돌아오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인터넷에는 각 지역 에키벤에 대한 정보를 담은 사이트도 즐비하다. 일본 사람들의 에키벤 사랑도 유난스럽다.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와 여행사 주최로 에키벤 콘테스트가 열리는가 하면,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역 매점으로 와 에키벤을 사가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 | 미야자키 '태양의 달걀' vs 돗토리 '두바이의 태양' |

일본 남부지역에 속한 미야자키현은 본래 닭고기 가공육으로 유명한 지역이지만 최근에는 망고의 고장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미야자키 망고는 그곳의 풍부한 일조량과 전통 특산물인 닭의 의미를 절반씩 따와 '태양의 달걀'로도 불린다. 2007년 초 일본의 인기 코미디언인 히가시고쿠바루 히데오(東國原英夫)가 미야자키현 지사로 선출된 후 직접 홍보에 나서면서 태양의 달걀은 그야말로 '날개'를 달았다.

주문이 폭주하면서 개당 수천~1만엔대이던 가격은 1만5천엔(약 12만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태양의 달걀은 당도 15도


농수산물유통공사 제공

연합

**석탄산업이 사양길을 걸으면서 폐허로 변해가던 유바리시는 '유바리 킹'이라는 멜론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일찌감치 석탄의 대안으로 멜론 신품종 육성에 힘쓴 결과다. 공동집하·출하제를 실시하면서 자체 품질 검사를 통과한 멜론만 '유바리 킹'이라는 브랜드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6월 일본 시즈오카국제공항 개항 기념으로 한국과 일본이 공동 출시한 양국 특산품이 공항에서 판매되고 있다(왼쪽). 지난 8월 인천세계도시축전에 출품했던 시즈오카현 특산품들.

이상, 무게 3백50그램 이상의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토록 하는 등 엄선된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고가 과일이라면 '두바이의 태양'이라는 별명을 지닌 돗토리현의 특산물 돗토리스이카(수박)도 빠지지 않는다. 돗토리수박은 직경 30센티미터로 무게 15킬로미터에 이르는 우량 수박이다. 일반적으로 수박은 성분의 95퍼센트가 수분이고 이 가운데 4~6퍼센트가 당분이지만 돗토리수박은 당분이 이보다 월등히 높은 게 특징이다.

수박의 당분은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돼 여름 폭염에 지친 몸을 달래는 데 제격이다. 돗토리중앙농협은 이를 마케팅 포인트로 삼았다. 더위에 지친 두바이 시민들을 당도 높은 돗토리수박으로 달래준다는 마케팅 전략을 펼친 것. 덕분에 일본 시중에서 3천엔에 팔리는 돗토리스이카는 아랍에미리트 수도 두바이에서 3만엔에 이르는 고가에 팔리고 있다.

### | 홋카이도 '유바리 킹' vs 야마가타 '사쿠란보' |

잘 키운 특산품 하나가 쓰러져가던 지역을 일으켜 세우는 효자 노릇도 한다.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市)는 1960년대만 해도 석탄산업이 주류를 이룬 광업도시였다. 석탄산업이 사양길을 걸으면서 폐허로 변해가던 유바리시는 '유바리 킹'이라는 멜론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지금 일본에서 유바리시를 광산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다.

일찌감치 석탄의 대안으로 멜론 신품종 육성에 힘쓴 결과다. 유바리농협은 지금까지 멜론 관련 상표권만 1백44개를 등록했을 정도로 멜론 특산지로 유명해졌다. 판매가격도 1킬로그램에 8백엔으로 다른 지역의 멜론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유바리시의 성공 요인은 유바리멜론을 고유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지자체와 농협이 손을 맞잡았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집하·출하제를 실시하면서 자체 품질검사를 통과한 멜론만 '유바리 킹'이라는 브랜드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동북부에 자리 잡은 야마가타현의 사쿠란보(체리)는 단지 먹는 과일에 머무르지 않고 체험하는 과일로 부가가치를 높인 사례다. 야마가타현은 해마다 6월 중순에서 7월 초순이면 나뭇가지가 휠 만큼 체리가 열려 곳곳이 붉은색으로 물든다. 이즈음이면 이 지역은 '사쿠란보 체험'을 하기 위해 찾은 관광객들로 덩달아 들뜬다. 체리는 재배가 까다로워 수확하기가 쉽지 않은데 야마가타현은 일본 체리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할 만큼 수확량도 많고 맛도 좋다.

야마가타현은 장마철에도 강수량이 적고 일교차가 커 과일을 재배하기에 최고 환경을 갖춘 곳이다. 과일왕국이라고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야마가타현은 생산되는 과일을 내다파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열매를 따서 먹거나 가져갈 수 있는 농장체험시설을 곳곳에 갖추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사쿠란보를 맛보기 위해 주말마다 도쿄를 비롯한 일본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지난 한 해만도 54만2천2백여 명이 다녀갔다.

### | 일본판 신토불이로 인기 더해가는 교야사이(京野菜) |

일본에서는 일반 채소보다 10~20퍼센트 가격이 비싼데도 소비자들로부터 호평받고 있는 농산물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로 교토(京都)에서 생산되는 채소인 '교야사이(京野菜)'이다. 가지 품목 중에서도 동그랗고 굵은 '가모나수', 당도가 높고 부드러운 파 품종 '구조네기' 등 인기 품목만도 21개에 이른다. 한국판 신토불이인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에 힘입어 교야사이는 최근 일본을 대표하는 채소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G

글 · 김창원(동아일보 도쿄특파원)



진장(陳醬)의 명인 기순도 씨의 장독대에서는 5백여 개의 항아리에서 간장과 된장이 익어간다.

# 名人은 손맛이다

## 며느리도 모르는 전통식품의 비밀

현재 전통식품 명인으로 활동 중인 사람은 31명. 명인으로 지정받으려면 전통식품 조리·가공업에 20년 이상 종사하고 조상 전래의 특별한 조리·가공법을 원형 그대로 보전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전남 담양의 장흥 고(高)씨 고세태가의 10대 종가. 장독대에 늘어선 5백여 개의 항아리에서 간장과 된장이 익어간다. 해마다 윤사월이면 이 항아리들은 아가리를 연 채 노란 송홧가루를 받는다. 송홧가루가 잡균을 막아주고 장맛을 좋게 해주기 때문이란다. 메주는 매년 동짓달에 국산 콩으로 쒀서 한 달쯤 발효시킨 후 죽염수에 띄워놓는다. 간을 좌우하는 죽염은 천일염을 3년 이상 자란 담양산 왕대에 넣고 소나무 장작불에 구운 것이다.

이쯤만 해도 전통 장맛의 장인이 되는 데는 손색이 없을 법하다. 하지만 지난해 이 종가의 며느리 기순도(61) 씨가 35번째로 '전통식품 명인'에 선정된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진장(陳醬·묵은 간장에 해마다 햇간장을 부어 맛과 향을 더해 내려온 아주 진하게 된 간장)'의 내력 때문이다.

"1년이 지난 간장을 떠서 별도의 항아리에 보관하는데, 이걸 시장(始醬)이라고 합니다. 시장을 5년 이상 숙성시키면 진장이 됩니다. 대대로 좋은 향과 맛을 위해 진장을 귀한 자식 돌보듯 돌보니 약장(藥醬)이라고도 하죠."

기 씨가 진장 항아리의 뚜껑을 열자 진한 먹물 같은 간장이 보인다. 항아리 바닥에는 수백 년 동안 가라앉은 소금 결정체가 두껍게 굳어져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해마다 햇간장을 덧붓는데도 염도 차이가 거의 없고 맛과 향이 진한 게 진장의 특징이다. 제사나 명절 때만 사용해온 장으로, 고 씨 종가는 3백60여 년간 진장 항아리를 4, 5개 보존해왔다. 이런 진장은 간장의 명가라는 일본 기코망 간장에서 건강에 좋은 '초고압 간장'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할 만큼 관심이 높다.

### 전통식품 명인 31명… 조상 전래 조리·가공법 지켜

이처럼 기 씨가 대대로 전수받은 진장의 내력만 보아도 '전통식품 명인'이 되기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6조에 따라 전통식품 명인으로 지정받으려면 전통식품 조리·가공업에 20년 이상 종사하고 조상 전래의 특별한 조리·가공법을 원형 그대로 보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몇 년 전부터는 명인으로부터 전수 교육을 받은 후 10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도 명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이 조금 완화됐다. 명인의 자손이나 전수자에게도 길을 터준 셈이다. 명인이 되면 '대한민국 식품명인'이라는 로고를 사용할 수 있고, 국내


기순도 명인의 된장


최봉석 명인의 갈골산자


조영귀 명인의 송화백일주



홍쌍리 명인의 매실액


양대수 명인의 추성주

외 홍보 행사를 일부 지원받는다. 대신 매년 '명인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 국산 재료를 쓰는지 출처를 밝혀야 한다.

현재 전통식품 명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31명. 조선 중기 명승인 진묵대사가 인근의 자생 약초로 빚어 마신 사찰 법주인 송화백일주를 전승한 조영귀(61) 씨가 1994년 명인 1호로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15년 동안 35명이 지정됐다. 그 사이 4명이 작고해 지정이 해제되고 현재 활동 중인 명인 31명 중에는 2명이 국가무형문화재, 8명이 지방무형문화재를 겸한다.

### 해외서도 뜨거운 반응… 수출 품목 점차 늘어

전통식품 명인 중에는 주류 부문이 16명, 식품 부문이 15명이다. 단일 지역으로는 담양에서 가장 많은 4명이 각각 창평쌀엿, 추성주, 엿강정, 진장 품목으로 명인에 지정됐으며, 전주와 하동 각각 3명, 안동 2명 순이다.

명인들이 빚는 전통주 중에는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한산소곡주, 안동소주, 문배주, 송순주가 포함되며, 일반인에게는 조금 생소한 계룡백일주, 옥로주, 계명주, 가야곡왕주, 김천과하주, 추성주, 옥선주 등이 있다. 전통식품 명인 제도 시행 초기에는 주로 전통주 명인들이 선정되다 차츰 식품과 차류의 명인들도 지정됐다.

굽이도는 섬진강 자락을 끼고 있어 경치 좋은 관광지로도 유명한 전남 광양 청매실농원의 홍쌍리(67) 씨는 매실농축액 명인이다. 강릉 갈골마을의 옛 이름을 붙인 갈골산자는 강정류이면서도 '속빈 강정'과 달리 속이 실하면서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찹쌀 한과로, 최봉석(65) 명인의 솜씨다. 파평 윤씨 가문의 종부 오희숙(55) 씨는 문중 행사 때 빠지지 않는 찹쌀 부각(여러 장의 김을 찹쌀풀로 붙여 말렸다가 튀긴 반찬) 덕분에 명인이 됐다. 무역회사에 다니는 남편 윤형묵(60) 씨가 10여 년 전 어느 외국 바이어에게 부각을 선물했다가 찬탄과 함께 상품화 제안을 받으면서 '오희숙 전통 부각'이라는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가장 최근인 2008년 8월에 진장의 명인 기순도 씨와 함께 전통식품 명인으로 지정된 서양원 (77·한국제다 대표) 씨는 60년 가까이 녹차산업에 종사해왔다. 2002년 국제명차대회에서 가루차 등 3개 부문 우수상을 받기도 한 서 씨가 지난해 명인으로 지정받는 데 기여한 품목은 황차(黃茶)와 말차(抹茶). 황차는 녹차와 홍차의 중간 정도로 발효시켜 만든 반(半) 발효차이며 말차는 찻잎을 쪄서 건조해 만든 가루차로, 두 가지 모두 찻잎의 신선도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 서 씨는 전남 장성과 영암 등에 33만여 제곱미터의 차밭을 직영하면서 이 중 4만9천여 제곱미터의 땅엔 유기농으로 차를 재배하고 있다.

전통식품 명인들의 '명품'은 해외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문배주, 전주 이강주, 옥로주, 추성주, 부각, 진장, 야생작설차 등이 이미 수출 길을 텄고, 다른 품목들도 수출을 타진하고 있다.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전통식품을 알릴 명인들의 손길은 더 바빠질 전망이다. G

글 · 최은숙 기자

한국식품명인협회 양대수 회장

## "후계자 교육 위한 지원 절실"



전통식품 명인들의 모임인 (사)한국식품명인협회 회장이자 전남 담양군의회 의장인 양대수(53) 회장은 그 자신이 명인이기도 하다. 양 회장이 추성주(秋成酒) 명인으로 지정받은 때는 2000년. 가사문학과 선비문화의 산실인 담양에서 나고 자라 추성 고을에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추성주 제조 기법을 전수받았다. 쌀과 13가지 한약재로 빚은 추성주는 은둔하던 선비들이 즐긴 술이다. 예인의 고장에서 선비 기풍을 이어받은 양 회장이지만 명인 제도에 대해서는 따끔한 일침을 놓는다.

"명인이 되면 '명예' 밖에는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그렇게 까다롭게 심사를 해서 명인으로 지정했다면, 무형문화재처럼 전수자 교육을 위해 매달 금전 지원을 해준다든가 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있어야죠. 원료도 까다롭게 감시해야겠지만 원가가 높아서 가격경쟁력이 없는 만큼 질적으로 차별화되는 제품이라고 대국민 홍보를 잘해줬으면 합니다."

양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전체 명인들의 홍보교육관을 건립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 대(代)에서 끝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전통식품을 대대로 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홍보교육관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우리 명인들의 바람입니다."

**한국식품명인협회 kfgm.kr**




'총각네 야채가게' 작가 이재국 씨(맨왼쪽)와 주연배우들.

# '총각네 야채가게'가 왠 뮤지컬?

## 유기농 채소 나눠주는 신토불이 뮤지컬 화제

"공연 도중에 관객들에게 신토불이 유기농 과일과 채소를 듬뿍 나눠드립니다. 관객들에게 드리는 거라서 맛과 신선도에 신경을 더 쓰죠." 국내 최초 유기농 농산물 뮤지컬로 꼽히는 '총각네 야채가게' 공연 팀은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의 우리 농산물 홍보행사에 자주 초청받는 단골손님이다.

"우리 농산물, 유기농 농산물을 사랑해주세요!" 지금 서울 대학로 바다씨어터에서는 '유기농 뮤지컬'이라는 부제를 단 '총각네 야채가게' 시즌2(기획·작 이재국, 연출 김한길) 공연이 한창이다. 무대에는 여러 가지 과일과 채소 좌판이 늘어서 있다. 김정훈, 지우석 씨 등 '총각' 다섯 명이 운영하는 일명 '총각네 야채가게' 풍경이다. 극 중에서 배우들은 우리 농산물을 관객들에게 공짜로 나눠주고, 친환경 생활을 자연스레 권한다.

유기농 뮤지컬이라는 특이한 부제만큼 이 공연의 출발은 신선했다. 이 작품을 기획하고 쓴 이재국(35) 씨는 극단 '목화' 출신 연극배우이자 방송작가로 3년 전 우연히 라디오를 통해 극의 모티프를 얻고, 유기농 열혈 전도사가 됐다. 그 시작은 이러했다. 경기방송 라디오 '박철의 굿모닝 코리아' 방송작가였던 그는 생방송 중 농산물을 구입해 매장으로 싣고 가던 채소 체인점 '총각네 야채가게' 직원들의 사연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는다.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사는 그들 이야기에 감탄했죠. 분당 이매점으로 찾아가 봤어요. 총각들이 채소를 팔고 일하는 모습이 뮤지컬처럼 보이더라고요. 물건 파는 소리도 노래로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 유기농산물, 소품으로 쓰고 관객에게도 나눠드려요

이 씨는 그 길로 '총각네 야채가게' 본사의 이영석 사장을 찾아갔다. 상호를 공연에 쓰고 뮤지컬로 만드는 판권을 사게 해달라고 설득했다. 이 사장은 처음에는 "웬 뮤지컬이냐?"며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2년의 준비 기간 끝에 지난해 9월 초연되고, 올해도 꾸준히 인기를 끌면서 '총각네 야채가게' 본사는 되레 든든한 후원자가 됐다.

"본사에서 2, 3일에 한 번씩 우리 토종 과일과 채소를 보내줘요. 극 중에서 소품으로 쓰고, 관객들에게도 듬뿍 나눠드립니

정경택 기자



다. 여름에는 수박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사과와 귤이 나가겠죠. 버섯과 상추, 파, 채소 종류도 골고루 나눠드려요. 관객들에게 드리는 거라서 맛과 신선도에 신경을 더 쓰고, 당연히 '메이드 인 차이나'는 사절이죠. 배우들이 '우리 농산물 사랑해주세요' 라고 외치면서 중국산을 주면 안 되니까요."

**"딸아이 얼굴이 점 하나 없이 깨끗해요. 병원에도 한 번 안 가고 건강하게 크니 감사하죠. 아내가 임신했을 때부터 친환경 음식으로 까다롭게 신경 쓴 덕분이에요. 애를 기르다 보니 유기농 농산물에 더 관심이 가는 게 당연하죠."**

배우들은 극 중에서 신명나게 우리 농산물 자랑을 늘어놓는다. 좋은 과일, 채소 고르는 요령도 알려준다. 극 중 잔재미인 농산물 공세는 이제 이 공연의 마니아들을 낳았다. 공연 사이트 게시판에 '오늘 쪽파 받은 걸로 파김치를 해 먹었어요' '덕분에 상추쌈 맛있게 먹었어요' 등의 후기를 요리 사진과 함께 올릴 정도다.

이렇게 신토불이 유기농 농산물 사랑에 앞장서다 보니 '총각네 야채가게'는 각종 유기농 농산물 축제의 홍보대사가 됐다.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2009 천안 웰빙 식품 엑스포'에서 뮤지컬 갈라쇼를 선보였고, 올 상반기에는 '2009 내 나라 여행 박람회' '서울시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 등에도 참여했다. 오는 11월에는 경기지역 농특산품을 소개하는 '지푸드 쇼(G-FOOD SHOW)'에 참가할 예정이다. 기업체들의 연수 프로그램의 하나로도 공연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입소문이 나서 초청을 받기도 하고, 유기농협회나 광주 김치 축제 등의 관계자 분들이 직접 공연을 보러 오시기도 해요. 우리 농산물을 뮤지컬에 넣었다고 격려해주시면서 '유기농'이나 '친환경'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 도움을 주시니 고마울 따름이죠."

각종 농산물 관련 단체의 지지를 받으면서 '총각네 야채가게'는 공연 팀과는 별도의 행사 팀까지 움직인다. '액션 팀' 배우 2명이 비트박스, 애크러배틱, 비보잉, 아카펠라 등의 쇼를 선보이며 별난 채소가게의 재미를 공연장 밖에서도 전달한다.



청춘스토리 제공

"토종 농산물 사랑해주세요." 극 중에서 신토불이 애용을 외치는 배우들.

'총각네 야채가게' 공연장인 바다씨어터는 낮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 낮에는 '유기농 아동극-고고씽! 채소나라'를 공연하기 때문이다. 비보이들이 채소 캐릭터로 변신한 '고고씽! 채소나라'는 가족 관객을 겨냥한 아동극으로 '채소를 먹자'는 주제를 전파한다. 영국에서 학교 급식 바꾸기 운동을 벌여 패스트푸드를 지양하고 채소 중심의 급식 문화를 전파한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의 사연에 착안해 만든 작품이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일부러 찾아오고 '우리 애가 드디어 당근을 먹어요' '우리 애가 웬일로 두부를 먹겠대요' 같은 공연 후기를 올리면 기분이 좋죠. 어린이 단체관람이 많았는데, 최근 신종플루 때문에 단체관람이 취소될 때 많이 속상해요."

이 씨는 요즘 '총각네 야채가게' 시즌3와 함께 다른 버전의 공연도 기획하면서 유기농 전용극장에서 유기농 공연 축제를 여는 날을 상상한다.

"공연에 G마크나 KS마크처럼 유기농 마크를 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모두 볼 수 있는 공연이죠. 극단 '목화'에 있을 때 우리 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연출가 오태석 선생님의 작품에는 욕이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저도 우리 배우들에게 '가족들이 보는 작품인데, 연습 때나 애드립 때도 거친 말은 쓰지 말자'고 하죠."

### 오전 시간엔 "채소를 먹자" 어린이 대상 공연도

이 씨는 무공해 농산물처럼 때 묻지 않은 유기농의 순수한 마음을 되찾자는 일명 '유기농 정신'을 강조한다.

지난해 초연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비보이 전문 공연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의 원작자이기도 한 이 씨는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극도 구상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가수 김창렬 씨와 함께 〈김창렬의 아빠 수업〉이라는 육아 책도 발간했다. 자신의 9개월 된 딸 연우를 위한 세심한 관심 역시 유기농 정신에 맞닿는다고 믿는다.

"딸아이 얼굴이 점 하나 없이 깨끗해요. 병원에도 한 번 안 가고 건강하게 크니 감사하죠. 아내가 임신했을 때부터 친환경 음식으로 까다롭게 신경 쓴 덕분이에요. 애를 기르다 보니 유기농 농산물에 더 관심이 가는 게 당연하죠."

이 씨는 인터넷에서 '유기농'이라는 검색어를 치고 자료를 찾아 공부하면서 새벽 4시든 5시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스태프들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공유한다. 이젠 뮤지컬 스태프들도 '친환경' '우리 농산물' '유기농'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귀가 쫑긋해진다. 내년에 공연할 '총각네 야채가게' 시즌3 준비에 바쁜 그의 우리 농산물과 '유기농 뮤지컬'에 대한 사랑은 계속될 듯하다. G

글 · 변인숙 객원기자

총각네 야채가게 cafe.naver.com/musicalchonggakne

# 추석 선물, 이왕이면 내 고향 농산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작한 지역 특산품 안내 책자.

주는 사람의 정성이 느껴지는 지역 특산품은 추석에 잘 어울리는 선물이다.
하지만 '가짜가 아닐까' 하는 우려 때문에 선택하기가 꺼려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이런 걱정은 그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특산품을 믿고 살 수 있는 장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열었다.




농협, 수협, 임협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쇼핑몰에서는 추석을 맞아 지역 특산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 사진은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지역 특산품은 추석과 같은 명절에 어울릴 뿐 아니라 보내는 사람의 정성이 느껴지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신토불이 제품이라 건강에도 좋은 데다 지역 특산품 소비가 생산지인 농어촌의 소득증대에도 한몫해 도시민과 농어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하지만 소비자들로서는 시중에서 특산품을 살 때 '진짜일까? 가짜가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선택을 꺼리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적극 나섰다. 추석을 맞아 온·오프라인 장터를 다양하게 열어 국민들이 질 좋은 특산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월 초 추석선물로 적당한 지역 특산품들을 모은 안내책자 6천 부를 제작했다. 이 책자는 우리 농축수산물 선물하기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편지와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와 공공투자기관, 지자체에 배포됐다. 민승규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은 전경련, 대기업,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직접 방문해 지역 특산품 세일즈에 나서기도 했다.

안내책자에는 2008년 농식품 파워브랜드대전에서 대상을 받은 풍산김치 등 전통식품과 원예농산물 부문에서 우수 제품들로 선정된 특산품들이 소개돼 있다. 또한 2008년 축산물 브랜드대전, 2009년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2007년 한국전통주 품평회 등에서 호평을 받은 특산품들과 전통식품명인협회, 농식품 클러스터 사업단이 추천한 새로운 가공 특산품들도 포함돼 있다.

### 추석맞이 온·오프라인 장터 전국 특산품 판매 나서

이 밖에도 농협유통과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쇼핑,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등 공공기관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추천한 특산품들도 소개돼 있어 전국의 대표적인 특산물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만든 지역 특산품 안내책자는 인터넷 사이트(www.foodjoa.co.kr)에서도 만날 수 있다.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내가 선물한 농림수산식품 사진 찍어 올리기' 행사에 참여하면 50명을 선정해 우리 농림수산식품 선물세트를 상품으로 준다. 낱말 퍼즐 참여자(우편참여) 50명에게는 우리 농림수산식품 선물세트를 준다. '우리

농림수산식품을 활용한 요리 레시피 올리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1등(1명)에게 한우선물세트, 2등(3명)에게 한과선물세트, 3등(10명)에게는 우리 농림수산식품 선물세트를 선물로 준다. 이벤트 기간은 10월 9일까지이며 당첨자는 10월 16일에 발표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또한 언론매체 및 온라인 홍보를 통해 실구매자를 겨냥한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이다. 직장여성의 '추석 선물 온라인 쇼핑법' 소개, 무료일간지 〈메트로〉를 통한 '추석맞이 우리 농식품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한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에는 우리 농수산식품 추석선물 보내기 배너광고를 싣고 e메일을 통해 캠페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려운 농어촌과 농어업인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맞아 9월 14일부터 27일까지 정보화마을에서 생산된 농림수산물을 인빌쇼핑(www.invil.com)을 통해 특별 판매한다. 제품은 전국 1백20여 정보화마을에서 생산하는 농축수산물, 지역특산품(제기용품), 전통가공식품 등 9백여 상품이다. 이번에 판매되는 상품은 지난해 추석 때와 비교해 최대 30퍼센트까지 저렴하다.

### 전년 대비 최고 30% 저렴… 각종 이벤트도 풍성

또한 1만원대 상품들만을 모은 초특가전과 우수 인기상품 할인코너를 통해 더욱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특별 판매 기간 동안 인빌쇼핑 홈페이지를 통해 추석선물을 구매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우수 농축수산물 경품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우체국은 '추석맞이 할인대잔치'를 9월 14일부터 27일까지 벌인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전국 우체국과 인터넷 우체국(www.ePOST.kr), 콜센터(1588-1300)에서 우리 농축수산물과 전통 민속주, 수공예품 등 5천1백여 특산품을 5~20퍼센트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농협, 수협, 임협 등 생산자조합과 경기, 강원 등 전국 8도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쇼핑몰을 통해 다양한 추석맞이 할인행사를 펴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함께 9월 23일과 24일,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총 닷새 동안 과천경마공원 바로마켓에서 지역 특산품을 비롯한 추석선물세트를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갖는다. 지난 4월 1일 문을 연 바로마켓은 전국 최대 규모의 직거래 장터로 유명하다.

또한 농협에서는 전국 관공서 등 2백80여 곳에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 9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농협, 수협, 임협 등도 전국 2천98개 하나로마트, 바다마트, 산림마트 등에서 할인행사를 갖는다. G 글·최호열 기자 / 사진·정경택 기자

###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쇼핑몰

**농협유통**
www.nhshopping.co.kr
02-3498-1033

**수협중앙회**
www.suhyup.co.kr
02-2669-9212

**산림조합중앙회**
www.sanrim.com
031-881-2130

**우체국쇼핑**
mall.epost.go.kr
1588-1300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www.eatmart.co.kr
1600-4284

**경기사이버장터**
kgfarm.co.kr
080-031-6688

**강원마트**
www.gwmart.co.kr
033-749-3317

**농협충북유통**
www.hanaroutong.co.kr
043-290-0152

**농사랑(충남)**
www.nongsarang.co.kr
070-7606-0123

**사이소(경북)**
www.cyso.co.kr
1644-4245

**안심농(경남)**
www.ansimnong.com
055-763-3462

**JB-Plaza(전북)**
www.jbplaza.com
070-7578-9637

**남도장터(전남)**
www.jnmall.com
080-610-1114

**e-제주몰**
mall.ejeju.net
064-751-3320

**정보화마을 인빌쇼핑**
www.invil.com
080-725-1100

###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

**과천경마공원 바로마켓**

**기간** | 9월 23~24일,
9월 29일~10월 1일 (5일간)

**주요 내용**
- 추석선물세트, 제수용품 등 1백여 개 품목을 취급하는 전국 최대 규모 직거래장터
- 81개 판매부스
- 축산물 이동판매 차량 4~8대 배치
- 축산물, 제수용품 10~40% 할인
- 과천, 사당 등 인근지역 고정고객 대상 일주일 전 사전주문 받아 산지 택배배송 등 편의 도모

**운영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추석맞이 대도시 직거래 장터**

**기간** | 9월 21일~10월 1일 (3~5일)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 농축수협 주관으로 관공서 등 2백80여 곳에 10~40개 내외 부스 설치
- 사전 수요조사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품목 10~40% 할인 판매

**운영기관** | 지자체 농협지역본부

**농협계통매장 등 특판 행사**

**기간** | 9월 18일~10월 2일 (6~15일)

**주요 내용**
- 농협 하나로마트, 수협 바다마트, 임협 산림마트 등 전국 2천98개 매장에서 제수용품 등 10~30% 할인 판매

**운영기관** | 지역 농수임협

**인터넷 직거래 장터**

**기간** | 9월 11일~10월 4일 (30~34일)

**주요 내용**
- NH쇼핑, G마켓 등 인터넷 이용 제수용품 등 할인 판매
- 축산물 우수 브랜드 입점 추진
- 사이버 거래소 통해 친환경 인증 농산물 직거래 할인 판매

**운영기관** | 농협 유통공사



국회의원 3인이 말하는 지역 특산품의 경쟁력

# "특산품 세계화, 선택 아닌 필수"

■ **김영록 의원**(민주당 / 전남 해남·완도·진도)

## "지자체 공동 브랜드 설립해야"

지역 특산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같은 제품을 놓고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힘을 모아 브랜드 파워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산부터 가공, 유통,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집중 육성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영록(54) 의원은 경기침체로 소비가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을 돕기 위해 민주당에서 벌이고 있는 '지역 특산품 살리기 운동'에 대한 이야기부터 화제에 올렸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당직자 등이 동참해 지역 특산품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홍보하는 '지역사랑 BUY(구매)운동' 이 그것인데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펼쳐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 개발을 통해 침체된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구가 남도지역이라 자랑할 특산품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해남 하면 먼저 유럽에도 수출되고 있는 황토고구마가 있습니다. 5년 연속 전국 최우수 브랜드로 지정된 '한눈에 반한 쌀', 김치, 게장, 조청 등도 대표적 특산품 입니다. 진도는 홍주, 검정쌀, 울금, 구기자, 참전복 등 다양한 지역 특산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재배 가공 유통 브랜드를 확보한 진도 울금은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돼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청정해역 완도의 수산물들은 수출시장에서도 크게 호평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복을 세계적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 전복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산품 개발과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과거 회자됐던 '신토불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 것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양한 특산품이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평가받는 무한경쟁 시대입니다. 차별화된 친환경, 기능성 먹을거리가 부각되고 있으며 유통 과정 또한 현대화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지역의 핵심 리더들을 마케팅 리더로 육성하고, 친환경 농수특산품 품질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기반시설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생산, 가공, 포장 등도 차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특산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기후나 토양 여건이 유사한 인접지역에서는 당연히 그 생산물도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동일 품목을 갖고 인접 지자체끼리 경쟁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광역 단위 브랜드로 육성해야 시장 선점, 중복투자 방지, 대규모 농어업회사와의 연계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구마(해남, 영암, 무안), 전복(해남, 완도, 진도), 겨울배추·절임배추(해남, 진도), 마늘(해남, 진도) 등의 대표 농수산물에 대한 광역 브랜드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특산품을 최상의 브랜드로 만들고 새로운 블루오션의 길을 열 수 있다고 봅니다. G




■ **류근찬 의원**(자유선진당 / 충남 보령 · 서천)

# "전통주 경쟁력 높여 세계로"

각 지역의 특산품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차별화가 중요하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산품 육성 전략이 'me-too' 에서 'catch-me' 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특산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규제 전봇대' 를 없애는 게 더 급하다고 조언했다.

류근찬(60) 자유선진당 의원은 어떤 것이 조금 성공한다 싶으면 지자체들이 너나없이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려는 것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비슷비슷한 특산품들이 난립하면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일으켜 함께 외면당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기 때문이다. "미투(me-too) 전략보다는 1등의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독창적인 특산품을 만들어내는 캐치미(catch-me) 전략이 필요하다"는 류 의원이 말이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특산품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충남 보령·서천만 해도 보령머드, 구운 김, 남포오석, 한산모시, 한산소곡주 등 자랑할 특산품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성공한다 싶으면 많은 지자체들이 철저한 사전조사 없이 개발에 나서 유사한 특산품이 쏟아져 나오는 탓에 그로 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개발하고 보자는 생각을 버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산품 개발에 나서야 합니다. 최근 닥나무에서 나온 한지로 만든 '봉황스탠드'가 외국 VIP를 위한 고액선물용으로 인기를 얻고 있고, '무지개 수박'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품 개발도 고품질화, 명품화 전략을 세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서천은 한산소곡주가 유명한데,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전통주를 육성해 세계화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맛과 향취가 뛰어난 한산소곡주는 홀짝홀짝 마시다 보면 어느새 취기가 오른다 하여 '앉은뱅이술' 로도 불리는 명주지요. 최근 일본에서 불고 있는 막걸리 열풍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일본 사케와 프랑스 와인, 영국 위스키처럼 명주로 발전할 수 있는 많은 전통주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우리 술 경쟁력 강화 방안'은 그동안 전통주 업체들이 요구했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해 전통주 산업에 활력이 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술 산업 진흥법'을 제정하고, 특히 '성분 ·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해 품질 고급화에 힘쓴다면 쌀 소비 확대와 한식 세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특산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먼저 '보이지 않는 전봇대'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충남 서천은 김 생산으로 유명한데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직된 법 해석으로 인해 많은 어민이 삶의 터전인 어장에서 지역 특산품인 김을 생산해내지 못하고 그만둬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전봇대는 그대로 둔 채 예산만 지원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땜질 처방이 될 것입니다. G

■ **강석호 의원**(한나라당 / 경북 영양·영덕·울진·봉화)

# "특산품 활성화가 녹색성장"

지역 특산품을 활성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우리 땅에서 나는 제철 먹을거리인 지역 특산품은 최고의 웰빙식품"이라며 "농촌을 살리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 특산품 활성화에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영양·영덕·울진·봉화가 지역구인 한나라당 강석호(53) 의원은 지역 특산품 자랑부터 했다. 이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최고인 명품들이라는 것이다. 영양 고추와 영덕 울진 대게, 봉화 송이는 유명한 이 지역 특산품이다. 강 의원은 여기에 더해 "영양 일월산 산나물과 영덕 복숭아, 울진 친환경쌀 생토미, 봉화 약한우도 한번 맛을 보면 잊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랫동안 지역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지역 특산품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역 특산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길게는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명품입니다. 기후나 지리적 특성, 자연환경, 토양 등 최적의 조건이 갖춰진 곳에서 생산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다른 곳에서는 모방이 불가능한, 그 지역에 내려준 자연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바다지만 영덕 대게나 울진 대게가 남해나 서해에서는 나지 않습니다.

또한 브랜드 가치가 높아 특산품 하나가 지역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지역경제는 물론 주민 소득에 크게 기여하는 효자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역 특산품이야말로 조상들이 지역을 지키며 살아가는 후대에게 준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후손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가꾸고 잘 지켜야 합니다.

**지역 특산품 활성화를 위한 한나라당의 노력이 궁금합니다.**

녹색성장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역 특산품 또한 녹색성장의 한 축이며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정책개발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한식 세계화 사업'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세계인들에게 한식의 식재료가 되는 지역 특산품이 알려지게 될 것이고 또한 소비될 것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금수강촌' 사업과 '향토문화관광축제 육성' 사업도 지역 특산품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산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지역 특산품도 이제 세계적 명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대한민국 지역 특산품 10대 브랜드'를 국가가 선정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 고갈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덕·울진 대게나 봉화 송이의 수확량이 해마다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우수품종 관리나 자원 관리를 체계화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특산품을 명품의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지역 주민들의 장인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G

글·최호열 기자 / 사진·정경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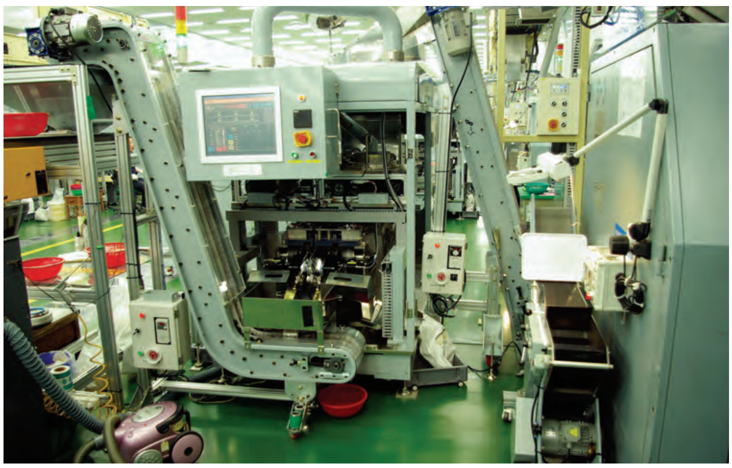
### 주화자동검사기 개발한 한국조폐공사

# "우리 기술로 만들어 예산 17억 절감"

한국조폐공사는 은행권, 주화 등의 화폐류를 제조 공급하는 일과 함께 기념주화나 기념메달, 훈장 등을 발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한국조폐공사는 이 같은 본연의 역할을 넘어 혁신적인 일을 해냈다. 주화자동검사기를 개발해 생산 능률을 향상시킴은 물론 외화 절약에도 기여한 것이다.

동아DB





한국조폐공사는 주화자동검사기를 개발해 예산을 절감하고 제품 품질 신뢰성을 높였다(위). 한국조폐공사가 자체 개발한 주화자동검사기.

우리나라에서 주화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66년이었다. 이후 한국조폐공사가 만든 주화의 완품과 불량품을 선별하는 일은 담당 여직원들의 몫이었다. 압인된 주화를 검사대 컨베이어 벨트에 흘려보내면 여직원들이 일일이 육안으로 불량 주화를 선별하는 식이었다.

그러다 보니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졌고 작업 피로도도 심했다. 무엇보다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해 제품원가 상승의 주원인이 됐다. 이에 한국조폐공사는 주화자동검사기의 개발을 추진했고, 마침내 지난해 1월 개발에 성공했다.

### 휴일도 밤낮도 잊은 개발… 2008년 본격 생산 들어가

주화자동검사기는 주화 양쪽 면의 표면상태 등 외형의 영상정보를 고속으로 인식해 압인된 주화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정렬하는 장비다. 주화자동검사기는 컴퓨터 비전기술(영상처리)이 적용된 6대의 카메라, 6대의 조명, 6대의 컴퓨터, 기타 자재들로 하드웨어가 구성돼 있다. 그리고 표면검사, 컬러검사, 두께검사, 검사관리 등 4가지 다른 종류의 소프트웨어가 각각의 목적에 맞게 컴퓨터에 설치돼 있다.

개발을 주도한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주화생산관리부 박주익 차장에 따르면 주화자동검사기는 프랑스와 일본에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가격이 만만치 않고, 그것을 수입해 우리

에게 맞는 구조로 개선하려면 적잖은 추가 비용이 든다고 했다.

"외국의 주화자동검사기를 수입하는 대신 우리가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구매 비용도 절감하고 우리 공사의 주화 생산기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었죠. 2005년부터 이런 구상을 구체화하기 시작해 2007년 중소기업 육성정책으로 정부가 추진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개발에 참여한 한국조폐공사 직원은 박 차장을 포함해 9명이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 신기술 개발 공모를 통해 선발된 (주)디에이테크놀로지가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2007년 6월부터 한 대의 시험용 기계를 놓고 시험과 조정 작업을 되풀이했다. 박 차장은 "휴일도 없었고 밤낮도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화폐 제조 업무는 무엇보다 공신력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제품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부담이 컸습니다. 작업장 한쪽에 마련한 임시공간에 상주하면서 개발업체 기술자와 수도 없이 밤을 새웠습니다."

### 원재료 투입부터 완성까지 세계 최초 '일관생산라인' 구축

주화 검사를 기계로 하는 데에는 기술적인 난관이 많았다. 특히 주화가 검사기계 내부로 투입될 때 동일한 방향, 동일한 위치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그리고 주화의 부적합 유형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감지할 수 있는 비전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숱한 시행착오를 겪고 수많은 밤을 지새운 끝에 지난해 1월 우리나라에 적합한 주화자동검사기가 완성됐다. 특허도 취득했다. 그리고 지난 2월 한국조폐공사에 주화자동검사기 9대가 설치돼 본격적인 생산 작업에 들어갔다.

프랑스 제품의 경우 대당 단가가 4억3천6백4만5천원인데 한국조폐공사가 개발한 제품은 대당 단가가 2억3천9백47만원이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함으로써 외국산 주화자동검사기를 구매할 때보다 대당 1억9천6백57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총 규모(9대 기준)로 따지면 약 17억7천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은 셈이다.

또한 국산화된 주화자동검사기를 도입함으로써 종전에 운용하던 수작업 검사인력 16명을 9명으로 감축할 수 있게 돼 연간 4억9천만원의 인건비 절약 효과도 거두었다. 게다가 시간당 검사량도 1백원화 기준으로 3만2천5백49개에서 4만7천5백32개로 46퍼센트 증가했다.

박 차장은 "예산을 절감하고 생산 효율성을 증대시킨 것도 커다란 효과지만 무엇보다 육안검사보다 더욱 정밀한 검사로 제품의 품질 신뢰성을 향상시켰다는 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국조폐공사는 주화자동검사기를 개발하면서 주화 생산공정 전반에 대해 재검토했다. 그 결과 원재료 투입에서부터 완성까지 제조생산라인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의 공정으로 이뤄지는 '주화 일관생산라인' 방식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게 됐다.



지난 5월 부산에서 열린 세계주화책임자회의에 참석한 세계 조폐기관 대표자들은 우리나라 주화제조 공정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지난 2월부터 일관생산라인이 공식 가동되면서 동전의 원재료인 소전(素錢)의 투입부터 계수, 포장까지 11개 공정으로 나뉘어 있던 기존 작업장이 6개 공정으로 단축됐다. 이로써 공정 운영이 45퍼센트 감축되면서 작업 효율성이 향상됐으며 비용 절감 효과까지 얻었다.

**"예산을 절감하고 생산 효율성을 증대시킨 것도 커다란 효과지만 무엇보다 육안검사보다 더욱 정밀한 검사로 제품의 품질 신뢰성을 향상시켰다는 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이제는 제품 수출을 넘어 기술 수출까지 생각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부산에서 열린 제25차 세계주화책임자회의(MOC)에 참석한 세계 48개국 조폐기관 대표자들이 일관생산라인을 견학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 경산화폐본부를 찾기도 했다.

한국조폐공사는 필리핀, 태국, 인도, 중국, 이스라엘 등 10여 개국에 주화를 수출하면서 주화제조 기술을 인정받고 있다. 박 차장은 "이제는 제품 수출을 넘어 기술 수출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G

글 · 백경선 객원기자

軍에 부는 녹색강풍

# 충성클럽 갈 때 장바구니…
# 야간훈련 땐 태양광 전지…

대한민국의 씩씩한 건아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병영에도 녹색 바람이 불고 있다. 장바구니를 들고, 태양광 전지를 사용하고, 식당 잔반통을 없애고…. 군에 부는 녹색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녹색 강풍이다.

#1 육군 7탄약창 본부중대 이재호(21) 상병은 요즘 장바구니를 드는 횟수가 부쩍 늘었다. 군인이 총도 아니고 장바구니를 들다니, 이 무슨 요상한 소리인가 싶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7탄약창에서는 간부들도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씩씩한 건아들이 아주머니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장바구니를 들게 된 사연은 이렇다. 흔히 PX로 불리는 충성클럽에서 지난 8월 초부터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의 하나로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7탄약창이 충성클럽에서 연간 사용하는 비닐봉투는 1만9천여 개. 봉투 구입비만 매년 30만~40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 돈으로 장바구니 1백 개를 구입해 생활관별로 나눠준 후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했다. 덕분에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내년부터는 봉투 구매 비용도 고스란히 절약하게 됐다.

이 상병은 "처음에는 쑥스럽기도 하고, 이런 걸 왜 들어야 하나 싶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을 통해 장바구니 이용이 얼마나 환경에 유익한지 알고부터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장바구니를 들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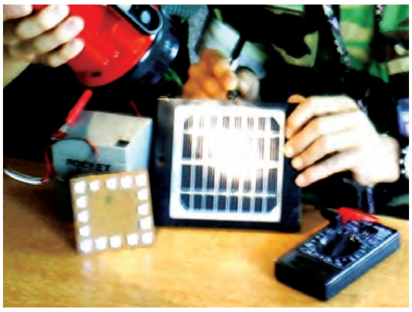


#2 육군 12사단 예하 다릿골대대 박종열(39) 상사는 예전 같으면 야외훈련 때마다 꼭 챙기던 건전지를 이젠 더 이상 준비하지 않는다. 그에겐 '비장의 무기'가 있기 때문이다. 다름 아닌 손바닥 크기의 태양 전지판.

박 상사는 그동안 야외훈련 때 건전지가 2개씩 들어가는 손전등을 사용해 텐트 주변을 밝혔다. 닷새 동안 훈련하면 1개 중대가 평균 1백여 개의 일회용 건전지를 쓰고 버렸다. 그는 "건전지를 한 번 쓰고 버릴 때마다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생각하니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직접 태양광 전지를 만들어 부대에 사용할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덕분에 다른 부대원들도 이제 야간에 태양광 전지로 텐트 곳곳을 밝히고 있다. 낮 동안 충전해두면 해가 져도 12시간은 거뜬하다. 태양광 전지 한 개를 만드는 데 약 5만원이 들지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성도 높다. 녹색성장 마인드로 무장하고 손재주까지 갖춘 박 상사 덕분에 부대는 환경도 보호하고 건전지 구입비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3 공군 17전투비행단의 장교식당인 독수리회관은 매주 '수·다·날'을 운영한다. 수다날이라면, 장교들이 수다 떠는 날? 물론 아니다. 수다날은 '수요일은 다 먹는 날'의 줄임말이다.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는 아예 잔반통을 없애는 것이다. 보통 군부대 식당은 민간 식당에 비해 잔반이 적게 남는 편이라 큰 효과가 있겠나 싶었지만 지난해 10월 도입 이후 성과는 예상을 뒤엎었다. 이전에 평균 1백63그램이던 1인당 한 끼 평균 잔반량이 53그램으로 줄어든 것이다. 잔반 감소로 환경만 보호하게 된 것이 아니다. 잔반이 줄자 식재료비가 고스란히 남아 6백만원이 넘었다. 이 중 일부는 후식과 식단 품질 향상에 사용됐다. 이 제도를 처음 제안한 영양사 이하나(27) 씨는 "이 제도를 제안한 나 자신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며 "녹색성장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육군 12사단 예하 다릿골대대에서 사용하는 태양광 전지. 야외훈련 때는 낮 동안 태양광 전지의 열판을 텐트에 달아 충전한다(왼쪽).

동아DB



육군 7탄약창 부대원들은 충성클럽 이용 시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사례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심을 갖는 일부 부대만의 이야기일까. 아니다. 민간사회에 불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바람은 군에도 예외 없이 불고 있다. 오히려 민간에 비해 바람의 강도는 더 세다. 군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라 실천은 어느 곳보다 강력하게 추진된다. 군의 녹색성장 바람이 민간보다 '강풍'인 이유다.

전방 철책선을 밝히는 나트륨 경계등을 발광다이오드(LED)로 교체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큰 예산이 드는 사업 외에도 작은 행동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군의 움직임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공군 17전투비행단의 장교식당인 독수리회관은 매주 '수요일은 다 먹는 날'을 운영한다. 점심시간에 아예 잔반통을 없애는 것이다. 잔반이 줄자 식재료비가 고스란히 남아 600만원이 넘었다. 이 중 일부는 후식과 식단 품질 향상에 사용했다.**

## 탄소 마일리지 모으면 외박… 녹색생활 유도

육군 특수전사령부 흑표부대는 최근 그린UCC 경연대회를 열어 장병들이 사용자제작콘텐츠(UCC)를 만들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했다. '흑표부대의 녹색성장'이라는 작품으로 최우수상을 받은 이한동 대위는 "부대원들과 함께 각본을 짜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범국가적 사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해군 진해기지사령부는 1인 1화분 갖기 운동으로 장병들의 환경의식을 키워주고 있다. 육군 55사단 역시 탄소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장병들이 친환경적인 활동을 할 때마다 받는 포인트를 모아 외박을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대 내에서 장병들이 실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은 그 자체로도 소중하지만 미래를 생각했을 때 더욱 가치 있는 일이다. 한 해에 우리 군을 통해 배출되는 인원이 무려 25만여 명.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전역하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군복을 벗으면 곧바로 우리 사회의 평범한 시민이 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군대는 다양한 생각과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마인드를 교육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셈이다. 더구나 모든 장병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먹고 자는 특수한 환경인 만큼 녹색 생활화를 유도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조건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성장은 전 장병이 그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만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각종 시설에 대한 녹색투자를 진행하면서 녹색성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G

글 · 김가영(국방일보 기자)

### 전주세계소리축제 홍보대사 세 쌍둥이 국악밴드 'IS'

# "일단 들어보면 국악 매력 푹 빠질 것"

국악은 고리타분하다는 편견을 버려라. 세 쌍둥이가 연주하는 퓨전 국악은 디스코만큼 발랄하고, R&B만큼 감동적이며, 클래식만큼이나 우아하다. 2009 전주세계소리축제 홍보대사로 '소리 열차'에서 라이브 연주를 시도하는 퓨전 국악밴드 IS를 만났다.



경기 고양시 일산과 전주를 잇는 '소리 열차'에 탑승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름다운 세 쌍둥이가 손으로 현을 뜯어 연주하는 흥겹고도 아름다운 선율의 매력에 푹 빠질 것이다.

퓨전 국악밴드 아이에스(IS)는 9월 23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소리 열차'에서 라이브 연주를 한다. 아이에스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인 스물넷의 김진아(가야금), 김선아(거문고), 그리고 김민아(해금) 세 쌍둥이 자매로 구성된 국악밴드.

2007년 첫 앨범 'Step One'을 내며 데뷔한 이래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과 국내외 각종 공연에 출연하는 등 '국악 대중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올해는 'In Dream Volume 1'이라는 미니 앨범을 내고 일렉트로닉 음악과 국악의 만남을 시도하기도 했다.

"국악이 지루하고 재미없을 거라는 편견을 접할 때 제일 속상해요. 실제로 들어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신나기까지 한 게 국악인데 말이죠. 열차뿐만 아니라 국악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라면 마다 않고 갈 거예요."

가야금을 연주하는 첫째 진아의 당찬 소감이다.

### 한국 전통음악 모던하게 풀어내… 소리열차서 만날 수 있어

이들의 '소리 열차' 공연은 '2009 전주세계소리축제' 홍보대사가 되면서 기획됐다. 9월 23일 개막해 27일까지 열릴 2009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올해로 10회를 맞는 판소리 축제. '소리 열차'는 오전 7시 30분 일산을 출발해 오전 11시 전주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운영된다. 전주세계소리축제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본래 코레일의 관광특급전용 '레이디 버드' 열차를 소리축제 주최측이 임대한 것이다.

아이에스는 한국 전통음악을 팝음악의 문법으로 해석해낸다. 국악 특유의 흥을 가미한 이들의 음악은 MBC 드라마 '궁S', '돌아온 일지매'와 영화 '앤티크 서양골동양과자점' 등의 배경음악으로 쓰이기도 했다.

이들이 전통음악에 푹 빠진 것은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악을 전공한 어머니는 어린 딸들에게 클라리넷과 플루트 등 악기 교육을 시켰다.그때 셋째인 민아가 남들이 다 하는 악기 말고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싶다며 해금을 택했고 첫째 진아와 둘째 선아도 덩달아 나섰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통악기의 음률에 매료되고 말았다.

하지만 '비인기 종목(?)'의 설움은 이미 선화예고 시절부터 예고됐다. 전학년 통틀어 국악 전공자는 고작 8명. 선화예고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로 진학했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툭하면 국악과 폐지설이 돌았고, 그럴 때마다 이들은 너무도 속이 상했다. '국악밴드를 해보자'는 아이디어는 그렇게 생겨났다.

이들의 결심을 부모도 적극 지원해줬다. "부모님도 우리와 같은 생각이라는 게 너무나 고맙죠. 전통을 지키되 대중과 호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우리들의 의견에 적극 찬성하시거든요."

자매나 형제가 같이 음악을 하는 경우엔 장점도 많겠지만 단점도 있을 테다. 그러나 세 쌍둥이는 '셋이 함께 간다'는 목표만큼은 확고하다고 한소리로 말했다.

"가족이라서 좋은 점은 서로의 음악 색깔이 달라도 가차 없이 서로 비판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라고 진아가 말하자 선아와 민아도 "각각 개성 있는 솔리스트로 활동할 수도 있겠지만 국악밴드로서의 정체성은 끝까지 밀고 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R&B 음악은 10대들이 듣고, 국악은 나이 든 어르신들만 듣는다는 건 편견이에요. 일찌감치 국악을 접한 어린 친구들 중엔 정말 마니아들도 많답니다. 국악이 얼마나 멋진지 모두가 알아줄 그날까지 열심히 해야죠."

무한한 소리(Infinity of Sound). 이들이 생각하는 국악의 매력이다. 이 영어 표현에서 앞 글자만 따와 밴드명을 지었다. 아름답고 당찬 이 세 쌍둥이의 손끝을 따라 그 무한한 소리가 세계 속으로 울려 퍼지길 기대해본다. G

글 · 변인숙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국악 대중화' 전도사로 나선 세 쌍둥이 국악밴드 IS. 왼쪽부터 김선아, 진아, 민아.



넌버벌 퍼포먼스 '점프'는 최철기 감독에게 작품을 준비하는 고통과 보람을 모두 안겨준 작품이다.

## 넌버벌 퍼포먼스 '비밥코리아' 최철기 감독

# "비빔밥 공연 맛보러 오세요"

대사가 없는 넌버벌(Nonverbal) 퍼포먼스 '난타'와 '점프'는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꼭 관람하는 한국 대표공연으로 자리 잡았다. 두 공연을 모두 연출한 넌버벌 퍼포먼스의 거장 최철기 감독이 이번엔 한국의 대표음식 비빔밥을 소재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한식을 소재로 공연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요리가 비빔밥이었어요. 비빔밥은 여러 재료를 비벼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역동적이고, 그래서 공연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음식, 특히 한식을 소재로 공연을 만든다는 점도 도전 욕구를 자극했습니다."

비빔밥을 소재로 한 넌버벌 퍼포먼스 '비밥코리아'를 준비 중인 최철기(36) 감독은 자신의 대표작인 '난타'와 '점프' '젠'을 뛰어넘는 색다른 공연이 될 것이라고 의욕을 보였다. 오는 10월 '코리아푸드페스티벌 2009'를 통해 초연될 '비밥코리아'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 CJ엔터테인먼트 등 정부와 민간이 의욕적으로 기획한 한식 세계화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작품이다. 그 성공을 위해 주최 측이 뽑아든 '비장의 카드'가 넌버벌 퍼포먼스의 1인자인 최 감독이다.

최 감독은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 콘텐츠로 자리 잡은 '난타'와 '점프'를 기획 감독하며 세계적인 감독의 반열에 올랐다. 그의 명성은 베이징올림픽 기념 공연 당시의 일화가 잘 말해준다. 베이징올림픽 기념 공연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공연 관계자들이 경합을 벌일 당시 중국 공연 담당자가 "'난타'와 '점프'를 만든 최철기 감독을 섭외해온다면 무조건 계약하겠다"고 해 일본 공연 담당자가 그 자리에서 보따리를 싸고 말았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선보인 공연이 바로 '젠(Zen)'이다. 이 공연은 중국 무대에서 큰 성공을 거둔 뒤 현재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비빔밥의 특징인 '비빈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역동적인 소재가 필요했어요. 그중에서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의 비보이들이 떠오르더군요. '비보잉'과 함께 비빔밥을 만드는 과정에서 볶는 소리 등을 비트박스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무술인 태껸 등도 접목했습니다."

### 비보잉, 비트박스, 태껸 등 혼합한 종합무대

'난타' '점프'와 차별되는 이번 '비밥코리아'의 가장 큰 특징은 음악성이다. 비보잉, 비트박스 등 음악적 요소들이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주요 퍼포먼스가 될 것이라는 게 최 감독의 말이다. 특히 이번 공연엔 대형 비빔밥을 무대에서 직접 만들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나는 음식 냄새도 공연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연 중에 관객들에게 비빔밥을 직

접 맛보게 하는 퍼포먼스도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오감(五感) 중 촉각을 제외한 시청각 및 후각과 미각까지 공연에 총동원되는 셈이다.

최 감독의 욕심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비빔밥이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웰빙'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한국의 수려한 자연을 표현하는 영상을 비보잉, 비트박스, 무술과 함께 역동적으로 뒤섞어 선보일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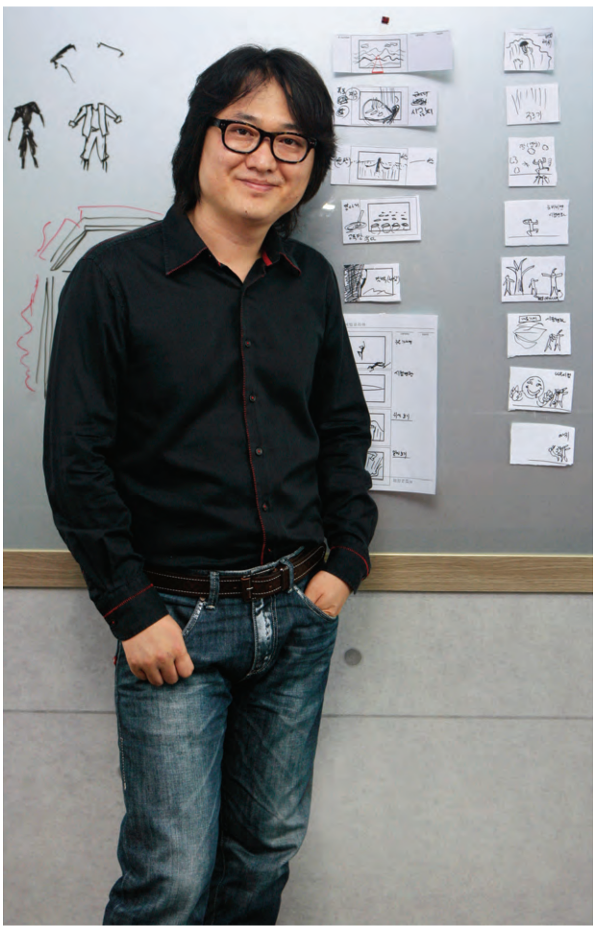
최 감독이 특히 이번 공연에 애착을 갖는 이유 중엔 그의 유별난 한식 사랑도 한몫했다. 외국에 머무는 기간이 많은 최 감독은 "해외에 나가서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먹지 못하면 화가 나서 일이 안 된다. 그래서 요즘엔 한식당이 없는 곳으로 출장을 떠날 땐 된장과 고추장을 싸가지고 나가 찍어먹는다"며 입맛이 그야말로 '골수 토종'이라고 말했다.

**"제 꿈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한국의 소프트웨어와 중국의 스토리, 일본의 기술력을 결합한 작품이죠.**
**동양의 신비를 무기로 세계인의 마음을 흔들고 싶습니다."**

연극이나 공연 무대에서 성공한 배우나 감독들은 지독하게 배고픈 시절을 이겨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최 감독 역시 마찬가지다.

"'점프'를 준비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5년을 준비했습니다. 나중엔 돈이 떨어져서 팔 수 있는 것을 다 내다 팔고 '점프'의 기획서와 시나리오가 모두 들어있는 노트북 컴퓨터 한 대만 남을 정도였습니다."

공연의 성사 여부는 투자자를 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최 감독 역시 '점프'의 기획안을 들고 수십 명의 투자자들을 만났다. 많은 이들이 '점프'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최 감독이 '오케이'하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점프'의 모티프에만 동의하고 많은 부분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고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기엔 지난 세월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또한 저 혼자만이 아니라 스태프와 배우들이 함께 고생했는데, 우리 공연이 아닌 엉뚱한 공연을 올리자고 이야기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비록 배는 고팠지만 훌륭한 공연은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배수진을 쳐야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타협을 거부하고 '마이 웨이'를 선택한 대가는 혹독했다. 밥값이 없어 굶는 것은 일상이고, 차비가 없어 걷는 일도 예사였다. 여배우 중 한 명은 생리대 살 돈도 없다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 결국 최 감독은 '점프'의 스태프와 배우들을 모아놓고 "이제 할 만큼 했으니 헤어지자"고 포기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많은 후배들이 '공연 쪽 일을 하고 싶은데 조언을 주세요'하고 찾아옵니다. 그때 제가 하는 말이 '3년만 온갖 열정을 다 쏟아 부을 자신이 있다면 도전하라'입니다. 3년 동안 온갖 열정을 기울인다고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3년으로는 어림도 없죠. 그러나 3년간 열정을 불태웠다면, 쏟아 부은 3년의 열정이 아까워 포기하지 못합니다. 배수진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신의 노력이 빛을 발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점프' 팀이 산 증인이에요."

최 감독은 '점프'를 준비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아 포기를 선언했다. 하지만 사흘 뒤 누가 따로 연락한 것도 아닌데 이들 모두 다시 연습실에 모였다. 이유는 단 하나, 지난 세월이 아까워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노력의 결과는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 2005년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페스티벌에 초청받은 '점프'는 1천8백여 작품 중 티켓 판매 1위를 기록했다. '점프'를 보기 위해 에든버러 도시를 돌고 돌아 줄을 선 관객들의 모습을 보며 최 감독과 배우들은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제 꿈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한국의 소프트웨어와 중국의 스토리, 일본의 기술력을 결합한 작품이죠. 아직까지 무대예술은 서양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동양의 신비를 무기로 세계인의 마음을 흔들고 싶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어온 최 감독이 그리는 '꿈의 무대'가 어떤 모습으로 관객을 만나게 될지 기대된다. G

글 · 최철호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한양대 스킨스쿠버 동아리의 '무(모)한도전'

# 대한민국 4極을 점령하다

〈독도·백령도·마라도·백두산 천지〉

"이제 정각 12시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독도 원정대장 78학번 김운태 씨의 우렁찬 목소리에 팀원들은 일제히 바닷속으로 풍덩 뛰어들었다.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물속 깊이 들어간 팀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김 씨가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돌리는 순간 휴대전화에 잇따라 메시지가 떴다.

"여기는 백령도, 다이빙 입수에 성공했습니다."

"여기는 백두산 천지다! 다이빙에 성공했다!"

"이곳은 마라도. 좋은 날씨와 잠잠한 바다 덕분에 다이빙 입수 성공!"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한양대 스킨스쿠버 다이빙 클럽 회원들이 4극 다이빙에 성공했다. 53명의 회원들은 대한민국 동서남북 4극인 독도(15명), 마라도(27명), 백령도(6명) 바다와 백두산 천지(5명) 속으로 뛰어들었다. 약 17킬로그램의 산소통, 8킬로그램가량의 벨트에 의지한 채 '독도는 우리 땅(독도)' '남북 통일(백령도)' '바다 사랑(마라도)' '인류 평화(백두산)'의 염원을 기원하면서 한반도 해저에서 뜻깊은 호흡을 나눈 것이다.

1969년 결성돼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한양대 스킨스쿠버 다이빙 클럽은 재학생 21명, 졸업생 1백90명이 소속돼 있는 유서 깊은 동아리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열린 '스킨스쿠버 다이버의 밤' 행사에서 광복 64주년과 동아리 40주년을 동시에 기념하기 위해 4극 지점 다이빙을 기획했다.

### 졸업생·재학생 한마음으로 4극 지점 다이빙 계획

처음엔 회원들 대부분 쉽지 않은 일이라며 과연 이 일을 성공해낼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동아리의 추억과 나라 사랑을 기리는 행사를 치러보자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4극 원정대 대표들과 후배 재학생들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4극 다이빙 행사를 준비해나갔다. 섬 출입 허가와 관련된 서류 준비와 뱃삯, 체류비 등의 경비 문제까지 꼼꼼히 점검했다.

선배 회원들은 짬을 내 주말마다 후배들을 이끌고 다이빙 훈련을 떠났다. 미처 단체 훈련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수영이나 웨이트트레이닝으로 기초체력을 다졌다. 지난 3월엔 동아리 방 앞에 4극 지점 다이빙의 성공을 기원하는 소나무도 심었다. 다이빙 최종 리허설을 위해 8월 8일에는 4극 다이빙에 참여하는 원정대원 모두 제주도로 훈련을 떠나기도 했다.

이렇듯 67학번부터 09학번까지 학번과 나이를 뛰어넘어 4극 다이빙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준비했지만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았다. 4극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곳을 허락받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섭외가 가장 어려웠던 곳은 백두산 천지였다. 천지는 평소에도 관광객을 통제하는 곳이기에 다이빙 입수는 더더욱 쉽지 않았다. 섭외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다이빙 입수 하루 전날 백두산을 찾은 백두산 천지 원정대는 일단 두만강 국경지역과 윤동주 시인의 모교 대성중학교 등을 방문하며 상황을 살폈다.

백두산 천지 원정대장 69학번 최형식 씨는 "광복절 당일까지도 입수할 수 있을지 크게 염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새벽 일찍 일어나 산을 올랐다"고 말했다.

백두산 천지는 안개가 자주 껴 1년에 수면이 보이는 기간이 90일 남짓한 곳이다. 그런데 4극 다이빙의 성공을 기원이라도 하듯 8·15 광복절 날의 천지 하늘은 더없이 맑았다. 대원들은 당일 백두산 중국 관리인에게 천지 생태계 조사가 목적이라고



한양대 스킨스쿠버 다이빙 클럽의
마라도 원정대팀이 지난 광복절에
4극 다이빙에 성공한 뒤 기뻐하고 있다.



설득해 무사히 몸을 담글 수 있었다.

백령도는 군사시설 지역이라 공식적인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게다가 근래 백상아리가 수시로 해안가에 출현해 백령도 원정대는 다이빙 전날까지 '바다에 상어가 출몰한다'는 위험 경고를 듣기도 했다. 그러나 다행히 해병대 특수수색대의 도움으로 해안을 철저히 검색한 뒤 당일 무사히 다이빙을 실행할 수 있었다.

### "생태조사 한다" 백두산 관리인 설득 끝 입수 성공

섬 주변에서 치러지는 4극 다이빙 성공의 관건은 그날의 날씨와 바다의 여건이었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무모한 도전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한순간에 떨쳐낼 만큼 광복절의 날씨는 화창하고 바다는 잠잠했다.

마라도 원정대에 참여했던 08학번 허소영 씨는 "행사 전날 비가 많이 와서 '다이빙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됐다. 게다가 마라도는 파도가 세고 조류가 심한 곳이라서 '바다에 떠내려가면 위험할 수 있다'는 등 무서운 소리도 많이 들었다. 그런데 하늘이 도왔는지 그날따라 날씨가 좋아서 입수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고 말했다.

독도 역시 날씨가 가장 큰 문제였다. 그러나 걱정은 기우였다. 다이빙하기에 최적의 날씨였다. 독도 원정대장 78학번 김운태 씨는 "파란 하늘 아래 우뚝 선 독도가 아름다운 섬이라는 걸 처음 깨달았다. 아름답고 소중한 독도를 잘 간직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4극 다이빙으로 한양대 스킨스쿠버 다이빙 클럽 회원들은 다시금 한반도의 아름다움에 대해 느끼게 됐다고 했다. 동아리의 최고령 회원이자 창립 멤버인 최형식(61) 씨는 "4극 다이빙으로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누릴 수 있어 좋았지만 더 늦기 전에 하루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며 바람을 밝혔다. 백두산 천지를 북한이 아닌 중국을 통해 찾아간 것이 못내 아쉬웠기 때문이다.

마라도 원정대에 참여했던 01학번 김태성 씨 역시 "이번 행사로 통일을 빨리 앞당기거나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천천히 한 발자국을 내딛는 작은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복절 4극 지점 다이빙을 마친 이들은 또 다른 원대한 꿈을 꾸고 있다. 동아리 창단 50주년에는 5극 지점으로 5대양을, 60주년에는 6극 지점으로 6대양 등 대한민국 한반도를 넘어선 도전을 할 계획이다. G

글 · 변인숙 객원기자

내 리스車, 남이 안 낸 과태료 때문에 가압류한다고?

# 리스 차량 과태료, 이용자에 직접 부과

절세 효과 등으로 자동차 리스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국내 자동차 리스업계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리스 차량 운행 시 운전자가 법규 위반을 하면 과태료가 위반 운전자가 아닌 리스회사로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최근 관련 제도가 개선됐다.

# 개인사업을 하는 A(48)씨는 지난 겨울 자동차 리스를 하는 B사와 중형 승용차 리스계약을 했다. 출고된 지 3년 된 차여서 비용도 새 차보다 훨씬 저렴했다. 자동차 리스는 이용금액 전액이 손비처리가 가능해 소득세를 많이 내는 A씨와 같은 개인사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1~3년마다 다른 차종으로 바꿔 탈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어서 A씨는 리스계약을 마치고 느긋한 마음으로 차량 인도 날짜를 기다렸다.

그런데 차량 인도 며칠 전 B사로부터 자동차 리스가 한 달 미뤄졌다는 급한 연락이 왔다. A씨가 "계약할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서 무슨 말이냐"고 항의하자 B사는 "우리 회사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 몇 명이 속도 위반을 했는데, 이들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회사 자산이 가압류됐다"며 "리스 차량들도 가압류당해 당장 내드릴 차가 없다"고 해명했다.




동아DB

자동차 리스와 관련한 규제가 개선돼 리스회사의 영업 부담과 이용자 불편이 줄었다.

그동안 과속이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긴 리스 차량 운전자들이 부과된 과태료 납부를 미루면 경찰은 리스 차량 소유주인 리스회사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실시했다. 이 때문에 A씨와 같은 또 다른 리스 이용자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거나 자동차 리스회사들이 골치를 썩여야 했다.

이는 그간 도로교통법에 따라 리스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이용자가 아닌 소유주, 즉 리스회사에 부과됐기 때문이다. 리스회사들은 차를 빌려간 고객이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일단 대납해준 다음 해당 금액을 청구하거나, 과태료 고지서를 다시 고객 앞으로 발송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게다가 고객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리스회사 전체 차량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3항에 따르면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렌트 차량의 경우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하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과태료 책임을 면제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본질이 동일한 리스 차량에 대해서는 그러한 면제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이런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다. 리스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리스 차량 이용자가 직접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관련 법안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 렌터카처럼 과태료 책임 면제… 리스업계 경영부담 줄어

법제처는 지난해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리스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 개선을 논의했고 소관 부처인 경찰청과 협의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지난 4월 1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렌트 차량과 리스 차량의 사업 본질이 같은 점을 고려해 교통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리스회사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법제처는 불필요한 가압류가 줄어 리스 이용자들의 불편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리스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50만 건에 이르던 과태료 납부 업무가 대폭 줄어 앞으로 리스회사의 경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

글 · 박경아 기자

# 귀농을 꿈꾸십니까? 농진청에 물어보세요

각박한 도시 생활에 지친 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귀농·귀촌의 꿈을 꾼다. 하지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게 마련이다. 농촌진흥청이 귀농·귀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 서울 마포구에 사는 회사원 박성진(39) 씨는 요즘 한창 주변 사람들에게 귀농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다. 늘 숨이 턱턱 막히는 것만 같은 갑갑한 사무실 생활에 몸과 마음이 지쳤고 한 달 벌어 먹고사는 빠듯한 월급쟁이 신세에도 질렸기 때문이다. 다행히 박 씨는 부모님이 물려준 작은 농장이 있다. 하지만 막상 귀농하려고 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두려움이 앞섰다. 또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시골에서도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을지, 막상 농사일을 시작하면 회사를 다닐 때만큼 벌 수 있을지 고민이 됐다.

농촌진흥청이 개설한 '귀농·귀촌 지원 정보 홈페이지'에는 박 씨와 같은 이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다양한 귀농·귀촌 성공 사례가 실려 있다.

공무원이던 김정규(51) 씨는 귀농을 결심한 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매월 실시하는 벤처농업교육으로 귀농 관련 배경 지식을 쌓았다. 또한 중소기업청의 벤처창업교육 및 자연농업교육원 교육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농업 이론 공부를 마쳤다.

2002년 충남 서산으로 귀농한 그는 자연농업교육원에서 배운 이론을 토대로 '자연농업 농자재'를 만드는 한편 발아현미를 개발하고 퇴비와 사료 및 영양제 만드는 방법을 특허출원했다. 또한 '씨눈이 달린 백미' 생산 등으로 소득 증대를 꾀했다. 그 결과 지난 2007년에 약 1억8천만원 상당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이렇듯 김 씨는 귀농을 위해 이론 공부부터 실질적인 귀농 후의 사업 구상 등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기에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사례는 귀농을 희망하는 박 씨에게 도움이 되고 본받을 수 있는 본보기라 할 수 있다.

'귀농·귀촌 지원 정보 홈페이지'에는 이처럼 귀농을 희망하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귀농·귀촌 정보들이 가득 모여 있다. 홈페이지는 크게 '귀농·귀촌 길잡이' '농업기술' '귀농교육' '성공! 귀농사례' '자료실' '커뮤니티' 등으로 나뉘져 있다.

'귀농·귀촌 길잡이'엔 귀농을 위한 정보 수집부터 정착지 물색, 영농기술 습득, 농지 및 주택 확보, 귀농 정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준비사항을 비롯해 농촌자원개발연구소의 '귀농·귀촌 매뉴얼' 등 귀농·귀촌 정보를 담고 있다.

'성공 사례' 코너에는 선배 귀농자들의 사례를 모아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귀농을 결심한 이들이 귀농을 위해 어떤 준비들을 했는지, 어떤 과정과 어려움을 거치고 정착에 성공했는지 등 최근 10여 년간의 귀농·귀촌 성공 사례들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커뮤니티' 코너를 통해 귀농 선후배들이 실시간으로 기술 교류를 할 수 있고, 홈페이지 상담코너나 전화 상담을 통해 농촌진흥청 연구원과의 상담도 가능하다. G

글 · 김성주 객원기자

농촌진흥청 Tel 1544-8572 www2.rda.go.kr/go2nong

농촌진흥청 제공






2002년 귀농한 김정규 씨(사진 오른쪽)는 발아 현미, 씨눈이 달린 백미 등을 생산해 2007년 1억8천만원 상당의 소득을 올렸다. 농촌진흥청 귀농·귀촌 홈페이지는 김 씨와 같은 귀농 성공 사례 등 다양한 귀농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입영신청으로 영주권자, 징병검사~입대 하루만에 OK

# 해외 입대 더욱 간편해집니다

해외 영주권자들의 입대 신청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입대하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을 직접 찾아가는 등 2, 3차례 귀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9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입영희망원 신청이 가능해져 해외 영주권자의 입대 절차가 간소화됐다.



일러스트 · 이승현

**해외 영주권자 자원 입대자**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계 |
|---|---|---|---|---|---|---|
| 38명 | 96명 | 82명 | 127명 | 150명 | 100명 | 593명 |

2009년 7월 31일 현재

독일에서 태어나 일곱 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오도영(36) 씨. 미국 영주권자로 국내 병역의무가 면제됐지만 서른세 살이던 2006년 입대해 올해 3월 군 복무를 마쳤다. 현재 전북대에서 늦깎이 공부를 시작한 오 씨는 입대 경험이 인생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지난해 4월엔 에콰도르에서 치과의사로 일하는 이태훈(32) 씨를 비롯한 20여 명의 영주권자가 자원 입대했다. 이들 역시 '대한의 아들'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익숙지 않은 조국 땅에서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 영주권자들의 자원 입대가 늘고 있다. 2004년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가 실시되면서 첫해 38명을 시작으로 2005년에 96명, 지난해 1백50명, 올해는 7월까지 1백명이 넘는 해외 영주권자 청년들이 자원 입대를 했다. 지금까지 총 5백93명이 신청해 이 중 4백28명이 현역병 등으로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이들이 입대를 하기 위해선 직접 해당 지방병무청을 방문해야 한다. 또 징병검사를 거쳐 입대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두세 차례 입국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던 것.

자원 입대를 원하는 해외 영주권자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은 9월 1일부터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입영희망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신청'의 '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을 클릭한 후 원하는 입영 일자와 징병검사 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 영문서류 작성 안내 · 1대1 병역설계 서비스까지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해외 영주권자들은 한 번 입국으로 징병검사에서 입영까지 가능해져 그동안의 불편을 덜게 됐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모국어 사용에 익숙지 않은 영주권자를 위해 서류작성 방법 등을 영문으로 안내하는 한편 '병역설계사'를 지정해 신청부터 입영까지 '1대1 병역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병무청 한윤규 공보담당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입대를 원하는 해외 영주권자는 빠르면 하루에 징병검사부터 입대까지 마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외 교민의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영주권자 입영여건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 정책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외 영주권자는 지난해 7월 법 개정으로 35세까지 입대가 자동 연기되고, 35세가 넘으면 면제된다. 따라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5세 전에 국내 장기체류나 경제활동 등은 제한된다. G

글 · 최철호 객원기자

병무청 www.mma.go.kr




일러스트 · 채홍석

# 저축도 '1+1' 워킹푸어에 희망을

##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지원

빈곤층을 대상으로 매달 최고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10만원을 보조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시범사업이 9월 1일부터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빈곤 탈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인천시 계양구에 사는 A(33)씨 가족은 전형적인 '워킹푸어(Working Poor · 근로빈곤층)' 다. 할머니부터 손자까지 3대가 함께 사는 이 가족은 두 아이의 육아를 맡은 A씨 부인을 제외하고 할머니는 빌딩 청소원, 가장인 A씨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일하지만 다섯 식구가 살기엔 수입이 빠듯하다. A씨 가족의 한 달 수입은 1백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말 그대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상황이기에 저축은 꿈도 꾸지 못한다. 이들 가족에게는 집을 늘려가는 등 조금이라도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A씨 가족과 같은 차상위 빈곤층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최근 4개 지방자치단체(경기, 인천, 부산, 전북)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자산형성 지원(IDA)' 시범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9월 세부집행계획 확정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통해 10월쯤 대상자를 선발한 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자산형성 지원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빈곤층이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매달 소득 가운데 일부를 저축할 경우 이에 대해 정부 또는 민간이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국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는 서울시의 '희망플러스 통장'과 '꿈나래 통장', 보건복지가족부의 '디딤씨앗통장' 등이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의 IDA, 영국의 세이빙 게이트웨이(Saving Gateway), 캐나다의 런 세이브(Learn Save) 등이 빈곤층 대상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일을 통한 소득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18~34세 청년 가구주와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로 약 2천 가구다. 자산형성 지원은 선정된 대상자들이 3년 동안 매달 1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지자체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0만원을 지원해 3년 동안 최대 7백20만원과 이자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립지원과 원소윤 사무관은 "우리나라는 자산보유액의 계층별 불평등 정도가 소득 불평등보다 2배 가까이 크고, 소득수준이 낮은 차상위계층은 자산이 제로(0)에 가까울 정도로 자산 불평등이 심한 상황"이라며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빈곤층의 금융소외 문제 완화, 주거 · 의료욕구 해결 및 창업 지원 등 탈빈곤 기반 조성과 가족 안전성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이 사업은 저축 및 자산 적립을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 3년간 한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최대 720만원 수령

이번 시범사업 대상자는 차상위계층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백20퍼센트 이하인 가구다. 4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1백59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주거, 창업, 교육훈련 등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자를 저소득 청년(18~34세) 및 아동 가구주로 한정하고 있지만 시범실시를 통해 지원 대상자의 확대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G

글 · 최철호 객원기자

보건복지가족부 자립지원과 Tel 02-2023-8449

# 건강기능식품 구입 땐 인증마크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가위를 앞두고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 요령을 알리고 있다. 포장지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도안이 없는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추석이면 건강기능식품이 선물용으로 인기를 끈다. 하지만 막상 고르려면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자칫 잘못 골라 상대방이 먹고 탈이 난다면 선물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급증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건강기능식품과 유사 건강기능식품의 구별 요령 등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 방법’을 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에는 제품 포장지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도안이 표시돼 있어야 한다. 이런 문구나 도안이 없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유사품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야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과 유사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증을 했느냐, 아니냐에 달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몸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들이 홍수를 이루고, 이에 따라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자 2004년부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사 등을 통해 인증된 제품에 한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 허위·과대광고 주의… 인터넷 구매 신중해야

이후 유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피해는 줄었지만 추석 등 명절 전후에는 여전히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정책과 박혜경 과장은 명절 때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게 사는 요령에 대해 “유사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모두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라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 인증 표시를 붙인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인증 표시가 붙은 제품이라도 당뇨, 고혈압 등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한 뒤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이라도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알고 복용해야 한다. 관절에 좋다고 해서 많이 복용하는 글루코사민은 게 껍데기에서 추출한 원료가 주성분이라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당뇨 환자들 사이에서 ‘신의 음식’으로 통한다는 누에가공식품 역시 누에에서 뽑아낸 단백질 농축 성분이기 때문에 신장합병증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 오메가3 역시 필수지방산 제품인 만큼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맞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대학병원이나 의약품 제조업체 등을 내세우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가시킨다는 허위·과대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시중가격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정상적으로 수입 유통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G

글 · 최철호 객원기자

건강기능식품 안전정보 **hfoodi.kfda.go.kr**



정경택 기자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 ‘건강기능식품’이란 도안이 붙어 있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증한 제품이므로 안심해도 좋다.




* 옹판지다: '내실있다','튼실하다'는 의미의 전라도 방언

국민과 소통하는 '국립공원 iTV' 개국

# 국립공원이 안방으로 들어왔다




전국 각지의 국립공원 정보와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영상으로 즐길 수 있게 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의 장(場)으로서 인터넷 방송 '국립공원 iTV'를 개국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인터넷 방송인 국립공원 iTV(www.tv.knps.or.kr)를 개국했다. 전국 20개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생태계 및 공원 관리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영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다.

인터넷 방송 개국으로 국민 누구나 가정이나 회사에서 간단한 클릭만으로 전국 곳곳에 있는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생태 등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공단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국립공원 정보를 인터넷 방송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공단의 공감대 형성과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매년 3천7백만여 명이 방문하는 국립공원은 국민의 휴식공간이다. 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의 출발점인 국립공원이 선진화 시대에 걸맞은 국민 행복공간으로 거듭나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공단과 국민 간 소통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단은 국립공원 iTV가 국민과의 소통 및 공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원관리'를 인터넷 방송의 모토로 삼은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국립공원 iTV가 선보인 주요 프로그램은 △국립공원 뉴스라인 △포커스(Focus) 국립공원 △국립공원 1백 배 즐기기 △국립공원을 지키는 사람들 △손수제작물(UCC) 참여마당 △TV 속 국립공원 등이다. 일률적인 정보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공단과 국민이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쌍방향 콘텐츠가 주를 이룬 점이 특기할 만하다.

그동안 공단 직원만이 알 수 있었던 공원 관리 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등도 방송을 통해 볼 수 있다. 앞으로는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탐방정보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해 수준 높은 콘텐츠를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안수철 국립공원관리공단 홍보실장은 "개국 초기에는 방송 프로그램을 주로 2주 단위로 제작 방영하고, 향후 IPTV로 전환되면 좀 더 생동감 넘치는 정보를 다양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립공원 iTV 개국으로 더 많은 국민이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느끼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산실인 국립공원의 소중함을 실감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G

글 · 송지현 객원기자

**국립공원 ITV** www.tv.knps.or.kr


동아DB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과 각종 정보를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사진은 강원 설악산국립공원.

# 내 생애 가장 큰 힘, 가족

글과 그림·최영순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단란함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즐거움은 사랑하는 가족을 보는 것이다.
– 페스탈로치

### 규제를 풀어야 관광이 뜬다

# “하늘엔 경비행기 떠 있고 도심엔 2층 버스 달리고…”

저공비행하는 경비행기 위에서 쪽빛 바다를 내려다보는 낭만. 남태평양 휴양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머잖아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관광강국으로의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머잖아 다도해 등 섬 지역에서 외국처럼 경비행기를 이용한 관광이 실현된다. 다도해를 관광할 수 있는 경비행기는 20~50인승이 될 전망이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장소 등은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김현준 사무관은 “다도해를 경비행기로 여행할 수 있으려면 경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공항이 필수다. 현재는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에 공항을 만들 수 없게 돼 있는데 그 규정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 간의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경비행기 투어가 언제 가능할지, 어디에 공항을 둘지는 미지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공항종합개발계획에 경비행기 공항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 곧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경비행기가 하늘을 누비는 동안 도심에서는 홍콩, 영국 등지에서나 볼 수 있는 시티투어용 천장 개방형 2층 버스가 다니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도로교통법령상 안전을 위해 운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내년 3월까지 제도가 개선되면 2층 버스가 도심의 새 명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관광산업 발전 이끌어

이와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관광에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일환으로 서울 청량리~강원 정선 부정기 열차 등 일부 노선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레포츠 열차(MTB전용 객차)를 시범 운영한다. 서민들의 여가생활과 여행경비 절감을 돕기 위한 호스텔(Hostel) 시설과 국민여가 캠핑장도 늘어난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에게 좀 더 많은 편의가 제공된다. 우선 영어 위주의 안내판에 영어 외에도 한자나 일본어 등을 추가로 병기하는 시범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이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선진 10개국의 비자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자유롭게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동아DB



동아DB

경기 화성시 어섬비행장을 이륙한 초경량비행기가 시화호 일대를 비행하고 있다(위). 도심에서는 천장 개방형 2층 버스가 도로를 누비게 된다. 사진은 프랑스 파리에서 운행 중인 지붕 없는 2층 버스.

정부는 지역 쇼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규모 관광단지 지정 면적 기준도 1백만 제곱미터에서 50만 제곱미터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민간의 토지비용 부담 등을 줄여 장기간 방치된 미개발지의 관광단지 개발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시설의 인프라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형 놀이시설이나 멀티콘텐츠그룹의 한국 진출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해 4억1천만명 수준이던 국내관광 수요를 2012년에는 7억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관광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관광강국을 향한 기초를 마련할 방침이다. G 글 · 최철호 객원기자

#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섬으로 초대합니다

## KT, 남태평양 쿡아일랜드와 MOU… 1년간 무상여행 이벤트

**KT가 남태평양의 섬나라인 쿡아일랜드와 손잡고 '로또' 여행 티켓을 준비했다. 행운의 주인공에게는 쿡아일랜드의 아름다운 해변가 최고급 리조트에서 1년 동안 지낼 수 있는 숙박권과 경비가 지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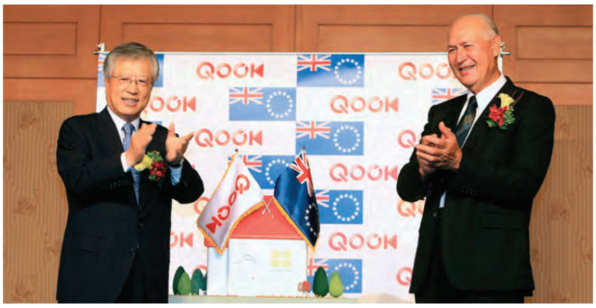
사방에 코발트빛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울창한 야자수가 그늘을 만들어주는 남태평양의 섬나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낭만적인 이곳에서 1년간 공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다. 여기에는 최고급 리조트를 숙소로 제공하는 옵션까지 붙어 있다. 대신 누구나 꿈꾸는 이 '로또' 여행의 주인공이 될 확률은 4천만분의 1이다. 선발 인원이 한 명뿐이기 때문이다.

KT가 가정상품 통합브랜드인 '쿡(QOOK)'을 알리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행사의 제휴 파트너가 남태평양의 섬나라 휴양지인 '쿡(COOK)'아일랜드라는 점이다. KT는 쿡 브랜드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철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같아 기억하기 쉬운 쿡아일랜드를 여행지로 점찍었다.

이석채 KT 회장은 9월 3일 방한한 쿡아일랜드의 테레페 마와테 부총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상호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MOU는 최고의 휴양지임에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쿡아일랜드로서도 자국을 알리고 관광 활성화를 모색하기에 좋은 기회다.

### 쿡아일랜드, 공중파 TV로 대한민국 특별방송 방영도

쿡아일랜드는 남태평양의 피지 섬 동쪽에 흩어져 있는 15개의 섬으로 이뤄진 뉴질랜드 연합국이다. 인구는 2만명이 조금 넘고, 영어와 마오리어를 함께 사용한다. 나라이름은 18세기 말 이곳을 처음 발견한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의 이름에서 땄다. 1901년부터 영국의 보호령에서 뉴질랜드령이 됐지만 1965년 자치정부를 수립함으로써 군사 외에 대부분의 결정을 직접 할 수 있는 자치권을 얻었다. 주요 수출품은 흑진주, 참치, 파파야 등이며 '세상에서 가장 유쾌하고 걱정 없는 나라'라는 캠페인을 통해 관광국가로서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동아DB

이석태 KT 회장(왼쪽)은 9월 3일 쿡아일랜드 테레페 마와테 부총리와 만나 상호협력과 지원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체결한 9월 3일을 '쿡(QOOK)데이'로 공식 선포한 쿡아일랜드는 공중파 TV를 통해 쿡데이와 대한민국을 소개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아울러 KT는 쿡데이 선포를 기념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대표(QOOK家대표)' 선발전을 진행한다.

9월 5일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10월 11일까지 온라인 퀴즈, 온라인 가위바위보 게임, 쿡가대표 면접을 거쳐 최종 1명을 선발해 쿡아일랜드의 5성급 리조트 '테 마나바'에서 1년간 지낼 수 있는 혜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테 마나바는 아름다운 주변 경관과 세련된 건축으로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최고급 리조트로, 유럽에서는 이미 명성이 자자하다.

쿡가대표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체재비도 지원된다. 또한 KT는 올해 말까지 쿡아일랜드를 방문하는 고객이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5만원권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KT 송영희 홈고객전략본부장은 "이번 MOU는 지구상에서 가장 유쾌한 섬과 가장 유쾌한 집을 만들기 위한 KT와 쿡아일랜드의 노력이 만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쿡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울창한 숲 운치 그윽한 대관령 옛길

# 고개 너머 주막 막걸리 생각에 두둥실

길에도 생명이 있다. 사람이나 동식물처럼 단명하거나 장수한다. 생겨난 지 몇 해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길이 있는가 하면, 더 넓고 반듯한 길이 새로 생긴 뒤에도 여전히 제 구실을 다하는 길도 있다. 까마득한 옛날부터 영동지방의 관문 구실을 해온 대관령 옛길은 생명력 강한 길로 첫손에 꼽힐 만하다. 기나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한 길은 단순한 교통로가 아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거대한 역사유적이나 다름없다.



대관령 옛길은 수백 년 세월 동안 이 길을 오간 숱한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만들어졌다. U자형 협곡처럼 파인 산길과 뿌리를 드러낸 고목을 군데군데서 접할 수 있다.



해발 8백32미터의 대관령을 통과하는 길은 현재 세 갈래다. 아흔아홉 구비의 구불구불한 대관령 옛길과 이제 456번 지방도로 변경된 옛 영동고속도로, 그리고 33개 교량과 7개 터널로 이어진 영동고속도로의 신구간이 백두대간 준령인 대관령을 가로지른다. 그 길들을 통해 하루에도 수천수만 대의 차량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대관령을 넘나든다. 하지만 대관령을 수시로 넘나드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곳의 울창한 숲 속에 국사성황당이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운치 그윽한 대관령 옛길을 직접 걸어본 이는 많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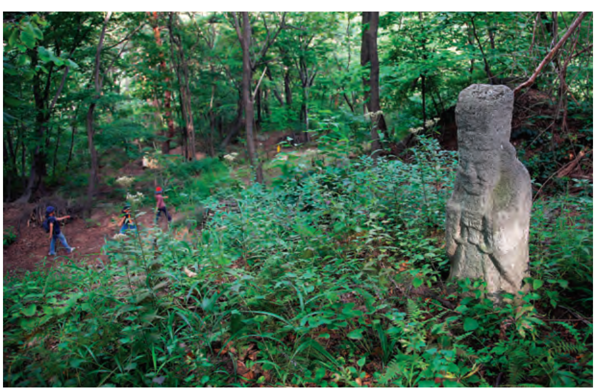
대관령 옛길의 전 구간을 섭렵한 것은 필자도 이번이 처음이다. 대관령국사성황제를 구경한 뒤에 국사성황신을 강릉 시내로 모시는 행차 인파에 섞여 대관령 옛길의 일부 구간을 걸어본 일은 두 차례 있었다. 하지만 성대한 축제였던 행차 자체에만 관심을 집중한 나머지 이 옛길의 독특한 매력과 운치는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다.

대관령 옛길은 국사성황당에서부터 시작된다. 물론 강릉 쪽의 시점인 대관령박물관에서 출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초행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관령 정상에서 강릉으로 내려가는 길이 훨씬 수월하고 마음 편하다.

옛 영동고속도로의 대관령휴게소에 차를 세워두고 1.3킬로미터쯤 걸으면 늘 무악(巫樂)이 그치지 않는 국사성황당에 도착한다. 우리나라 모든 성황신들의 지존(至尊)인 국사성황신이 머무는 곳인 데다 기도발이 좋기로 소문나 있어서 무속인들의 발길이 연중 끊이지 않는다.

### 반정 오르면 강릉 시내·동해 바다 한눈에 펼쳐져

대관령 국사성황신은 통일신라 때 지금의 강릉시 구산면 학산리에 굴산사를 세운 범일국사다. 강릉지역의 전설에 따르면, 범일국사는 임진왜란 당시 대관령의 나무들을 모두 군사로 둔갑시켜 왜군의 침입으로부터 강릉을 지켜냈다고 한다. 그래서 대관령 국사성황신에 대한 강릉 사람들의 믿음과 경외는 절대



대관령 옛 길가에 자리 잡은 무덤을 지키는 문인석.



전통 귀틀집으로 복원된 대관령 옛길 주막에는 숙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황토방과 여러 사람이 쉴 만한 평상도 갖춰져 있다.



대관령 옛길은 소나무 숲이 좋다. 때로는 하늘을 찌를 듯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로 가득 찬 숲을 가로지르기도 한다.
금강소나무숲을 지나고 작은 나무다리를 하나 건넌 뒤 10여 분쯤 걸으면 근래 복원된 주막에 당도한다.

적이다. 2005년 11월 유네스코에 의해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 선정돼 세계적인 전통축제로 인정받은 강릉 단오제의 주신(主神)도 바로 이 국사성황신이다. 그리고 대관령의 울창한 참나무 숲에는 국사성황당뿐만 아니라 산신당도 자리 잡고 있다. 이 산신당에 모셔진 산신은 삼국통일을 이룩한 김유신 장군이라고 한다.

대관령 옛길은 국사성황당을 벗어나자마자 하늘을 가릴 정도로 울창한 숲으로 들어선다. 키 작은 조릿대와 우람한 참나무가 혼재한 숲은 한낮에도 어둑해서 신령스러운 기운이 느껴진다. 국사성황당에서 2백 미터쯤 오르면 백두대간 주능선에 이른다. 능선에는 삭막한 시멘트도로가 가로지르고, 길가에는 KT중계소의 철탑이 우뚝하다. 그 생경한 풍경을 애써 외면하며 다시 숲길로 내려섰다.

### 돌서낭도 군데군데… 금강소나무 숲길 운치 있어

능선에서 옛 영동고속도로를 만나는 반정까지의 1.8킬로미터 구간은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오솔길이다. 봄철의 얼레지, 꿩의바람꽃, 피나물 등에서부터 가을철의 투구꽃, 구절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야생화가 연이어 피고 지는 꽃길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눈만 즐거운 게 아니다.

새소리며 바람 소리에 귀가 즐겁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느껴지는 부엽토의 푹신함에 발바닥이 편안하다. 갈 지(之)자 형태로 쉼 없이 구불거리는 이 길은 걷는다기보다도 두둥실 떠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경쾌하고 기분 좋다. 반정으로 내려가는 길가에 세워진 한원진의 시비에도 "새가 다닐 험한 길은 하늘에 걸렸고 / 이 길을 가는 나도 반공중을 걷고 있네"라는 구절이 있다.

대관령 옛길은 두세 사람이 나란히 걸어도 될 만큼 넓다. 때로는 U자형의 협곡 같은 구간도 지난다. 큰 뿌리를 드러낸 채 위태롭게 서 있는 길가의 고목들도 적지 않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이 길을 오간 숱한 사람들의 발자국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처럼 오랜 내력이 또렷한 길을 구렁이 담 넘듯 슬그머니 돌고 돌다 보니 어느덧 반정이다.

반정은 강릉 구산과 평창 횡계 간을 잇는 대관령 옛길의 중간지점이다. 시야가 훤해서 강릉 시내와 동해 바다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워 보인다. 하지만 마음 편히 쉬기는 어렵다. 옛 영동고속도로를 오르내리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들의 소음이 만만치 않은 탓이다. 느긋하게 휴식하기에는 반정에서 1킬로미터 아래쪽에 위치한 쉼터가 제격이다. 그 쉼터가 아니어도 길을 걷는 동안 중간중간 나무벤치가 놓여 있어 잠시 쉬어가기에 좋다.

반정을 지나서 3백 미터쯤 내려온 길가에는 나지막한 돌담에 둘러싸인 '기관이병화유혜불망비(記官李秉華遺惠不忘碑)'가 있다. 지방의 하급관리였던 이병화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조



노란 피나물꽃이 만발한 대관령 옛길을 따라가는 국사성황신의 행차 모습.
국사성황제는 매년 음력 4월 15일에 열린다.




## 여행 정보

**숙박** 대관령 옛길과 가까운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는 대관령옛길펜션(033-336-1026), 올리브하우스(033-335-3620) 등의 펜션을 비롯한 숙박업소가 많다. 대관령 내리막길의 종점과 가까운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에도 대관령노루귀펜션(033-655-6622), 상록수펜션(033-644-7188) 등의 숙박업소가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휴양림이자 솔숲과 계곡이 좋기로 이름난 국립대관령자연휴양림(033-644-8327)도 이용해볼 만하다.

**맛집** 인제 용대리와 함께 황태의 본고장으로 손꼽히는 평창 횡계리에는 황태회관(033-335-5795), 송천회관(033-335-5943) 등과 같이 유명한 황태요리 전문점들이 여럿 있다. 뽀얀 국물에다 솜처럼 부푼 황태살을 넣고 끓인 황태국은 술꾼들의 해장국으로도 좋다. 횡계리의 향토 별미 중 하나인 오삼(오징어+삼겹살)불고기는 납작식당(033-335-5477)과 횡계식당(033-335-5388)이 잘한다. 대관령 아랫마을인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에 위치한 초원쌈밥(생선구이쌈밥 · 033-641-9588), 옛카나리아(대구머리찜 · 033-641-9502)도 소문난 맛집이다.

**가는길** **승용차** | 영동고속도로 횡계나들목→구 영동고속도로(=456번 지방도)→옛 대관령휴게소(상행) ※ 옛 대관령휴게소 주차장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관령 옛길의 종점인 대관령박물관이나 어흘리에서 차를 주차해둔 옛 대관령휴게소로 다시 돌아오려면 히치하이킹을 하거나 횡계콜택시(033-335-6263)를 불러야 한다. 대관령박물관에서 옛 대관령휴게소까지 콜택시 요금은 약 2만원.

**대중교통** | 서울의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횡계를 경유하는 강릉행 버스가 06:30~20:05 사이에 하루 24회 출발한다. 3시간 소요. 횡계에서 옛 대관령휴게소로 가는 노선버스는 없으므로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선 순조 24년(1824)에 인근 주민들과 장사꾼들이 합심해서 세웠다는 비석이다. 오랫동안 대관령의 중간쯤에는 주막이 없어서 생계를 위해 고개를 넘던 어흘리 주민과 장사꾼들이 겨울에 얼어 죽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이병화는 1백 냥의 사재를 털어 반정에다 주막을 짓고 나그네에게 침식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다고 한다.

### 대관령 옛길 중간 지점 '반정'서 한 땀 식히고

반정에서 1킬로미터 거리인 쉼터를 지나면서부터는 길의 기울기가 눈에 띄게 가팔라진다. 구절양장처럼 몹시 구불거리는 구간이 수시로 나타난다. 그래도 여전히 몸은 가뿐하고 발길은 날아갈 듯 가볍다. 조금 에돌더라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경사와 고도를 극복하려는 옛 사람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길의 고단함을 덜기 위해 때로는 산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소원 성취를 빌며 돌 하나씩을 올려서 쌓은 '돌서낭'도 군데군데 남아 있다.

대관령 옛길은 소나무 숲이 좋다. 어디나 흔한 소나무가 아니라 춘양목, 강송 등으로 불리는 금강소나무다. 때로는 하늘을 찌를 듯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로 가득 찬 숲을 가로지르기도 한다. 금강소나무숲을 지나고 작은 나무다리를 하나 건넌 뒤 10여 분쯤 걸으면 근래 복원된 주막에 당도한다. 전통 귀틀집으로 지어진 주막에는 숙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황토방도 있고,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쉴 만한 평상도 놓여 있다. 고소한 파전이나 도토리묵 한 그릇에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이 저절로 생각나는 곳이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탓에 명실상부한 주막이 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주막에서 대관령 옛길이 끝나는 대관령박물관까지의 거리는 3킬로미터가량 된다. 계곡의 물길을 끼고 가는 길은 평지나 다름없이 수월하지만 길의 정취는 한결 떨어진다. 그래도 시원한 물소리가 끊이지 않는 덕에 여전히 기분은 상쾌하다.

주막에서 30분쯤 내려가면 하제민원 터에 당도한다. 펜션과 음식점, 우주선 모양의 화장실이 있는 이곳에서 흙길이 끝나고 시멘트포장도로가 이어진다. 강릉 쪽에서 대관령 옛길을 오를 때에는 이곳까지 차로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산길을 내려온 사람들에게 이 포장도로는 되도록 피하고 싶은 길이다. 비포장 산길을 걷는 내내 편안했던 무릎과 발목이 갑자기 시큰거릴 만큼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옛날에 강릉 원님들이 부임할 때와 떠나갈 때에 울며 넘었다는 '원울이재' 만 넘어서면 길의 종점인 대관령박물관이 지척이다. 이윽고 종점에 당도하자 안도감이나 후련함보다 훨씬 더 큰 아쉬움이 가슴속으로 밀려들었다. G

글과 사진 · 양영훈(여행작가)

# 붓으로 피어난 세상, 겸재 정선을 만나다

### 겸재 정선展 '붓으로 펼친 천지조화(天地造化)'

| | |
|---|---|
| **일시** | 11월 22일(일)까지 오전 9시~오후 6시,<br>수·토요일 오후 9시까지(월요일 휴관) |
|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실 2층 미술관 회화실 |
| **관람료** | 무료 |
| **문의** | 02-2077-9000 www.museum.go.kr |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1676~1759)의 서거 2백50주년을 기념하는 '붓으로 펼친 천지조화(天地造化)'전이 연일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이번 전시는 겸재의 작품 중에서도 엄선한 1백42점을 선보였다.

36세에 뒤늦게 그림에 심취한 겸재는 82세까지 붓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그림을 그렸다. 그의 30년지기인 조영석(1686~1761)은 "겸재는 금강산과 영남지방을 두루 여행하고 사생해 산수의 형세를 얻었으며 사용한 붓을 묻으면 무덤을 이룰 정도"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서 특히 주목할 작품은 정선의 초기 화풍을 알려주는 '신묘년풍악도첩(1711)'과 '북원수회도첩(1716)'이다. 신묘년풍악도첩은 제작 연대를 알 수 있는 작품 중 가장 이른 36세에 그린 금강산 화첩으로 14면의 그림이 모두 전시돼 겸재의 진경산수 화풍을 한눈에 보여준다. 겸재가 41세 때 그린 북원수회도첩은 그의 인물화 중 제작 시기가 가장 빠른 것으로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에 처음 공개됐다. 이 작품은 겸재가 진경산수화의 창안자일 뿐 아니라 풍속화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다.

이 밖에 중국 당대 말기의 시인인 사공도의 시론을 스물두 장의 그림으로 제작한 '사공도시품첩', 중국 장시(江西)성 북쪽에 위치한 명산인 여산의 절경을 그린 '여산폭포도', 독일에서 소장하고 있다가 2006년에 반환한 '겸재 정선 화첩(10월 13일부터 전시)' 등은 정선의 또 다른 면모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이수미 학예연구관은 "이번 전시는 진경산수뿐 아니라 관념산수화와 고사인물화에도 능했던 겸재의 작품세계를 다양한 각도로 조명했다"며 "그의 첫 작품부터 마지막 작품까지 살피다 보면 화풍의 형성 과정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 국악 영상퍼포먼스 '꿈꾸는 단원, 춤추는 혜원'

| | |
|---|---|
| **일시** | 9월 24(목)~25일(금) 오후 7시 30분 |
| **장소** | 국립국악원 예악당 |
| **관람료** | A석 2만원, B석 1만원 |
| **문의** | 02-580-3300 www.gugak.go.kr |



김홍도, 신윤복 등 조선시대 예술가들이 화폭에 담았던 삶의 순간들을 생동감 있게 담아낸 국악 영상퍼포먼스다. 이 공연은 교과서나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었던 궁중기록화, 풍속화에 숨겨진 전통음악과 춤을 첨단 영상예술 장르인 미디어아트로 재현한다. 가곡, 거문고 독주, 비파와 생황의 이중주가 선보이는 선비음악과 검무, 한량무 등의 민속춤, 궁중무용인 처용가까지 한 번에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 연극 '벽 속의 요정'

| | |
|---|---|
| **일시** | 9월 27일(일)까지 화·금요일 오후 8시, 수·목요일 오후 2시,<br>토요일 오후 3시, 7시 일요일 오후 2시(월요일 공연 없음) |
| **장소** | 서울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
| **관람료** | VIP석 5만원, 일반석 3만5천원 |
| **문의** | 02-747-5161 www.sac.or.k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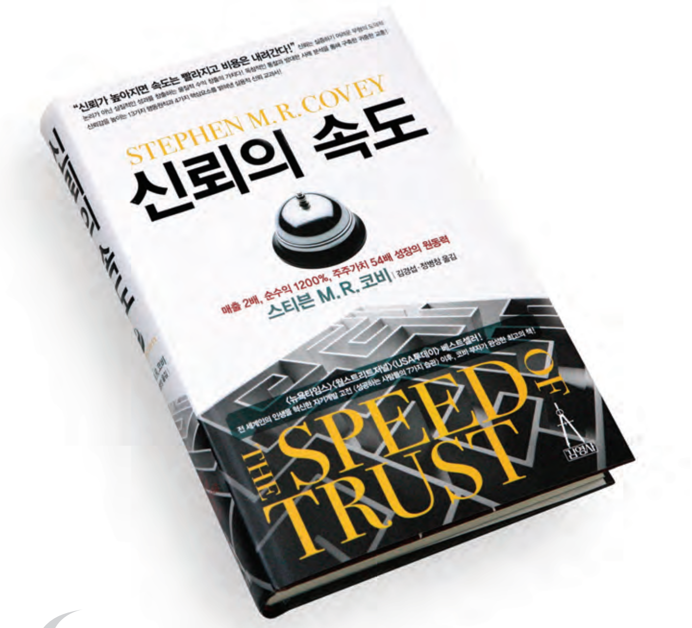


벽 속의 요정과 함께 사는 엄마와 어린 딸의 흥미진진하고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 50여 년의 세월을 배경으로 배우 김성녀가 1인 32역을 소화하며 명연기를 선보인다. 2005년 올해의 예술상을 비롯해 그동안 많은 상을 휩쓸었으며 전회 기립박수를 기록한, 작품성과 상품성을 겸비한 작품이다. 김성녀의 연기뿐 아니라 관객과 함께하는 계란팔이, 극중에 펼치는 그림자 인형극 또한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 나는 나를 믿는가, 남은 나를 믿는가 신뢰가 성공을 연다

## 신뢰의 속도

**스티븐 M. R. 코비** 지음 / **김경섭 · 정병창** 옮김 / **김영사 · 22,000원**




'나는 나를 믿고 있는가.' '다른 사람은 나를 믿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물음에 자신 있게 "예스"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신뢰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성공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가족, 친구, 회사 등 얽히고설킨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신뢰가 없다면 어떤 일이든 제대로 해나갈 수 없다. 믿음 없는 관계는 결국 절교, 파산, 이혼 등 최악의 상황을 만든다. 그러나 신뢰를 쌓으면 일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 결과는 상상 이상이다.

저자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스티븐 R. 코비의 아들로 아버지에게 처음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다고 하면서 "신뢰 관계만 탄탄히 쌓아도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예로 2003년 버크셔해서웨이와 월마트의 인수합병을 들 수 있다. 버크셔해서웨이는 월마트로부터 매출 2백30억 달러 규모의 회사인 맥레인유통을 인수했다. 버크셔해서웨이와 월마트는 공개 기업이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업 합병을 위해서는 여러 달 동안 자료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다. 또한 이를 위한 비용도 수백만 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그런데 이들의 인수합병은 인수 작업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단 한 번의 협상으로 끝났다. 버크셔해서웨이의 최고경영자(CEO) 워런 버핏은 연례보고서에 첨부된 경영자 편지에서 "월마트가 말한 그대로 믿고 따랐을 뿐이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말한 그대로 좋은 성과를 얻게 됐다"고 술회했다. 이 사례는 신뢰가 높으면 속도는 빨라지고 비용은 낮아진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는 셈이다.

### 실수했다 해도 성숙하게 대처하면 신뢰도 높일 수 있어

반대로 신뢰하지 않으면 속도는 느려지고 비용은 올라간다. 9·11 테러 이전 미국 내 항공여행은 이륙 30분 전에 공항에 도착해도 신속하게 보안검색을 통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테러가 일어난 이후에는 탑승 절차가 매우 엄격해졌다. 1시간 반이나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 보안검색을 받아야만 하고 항공요금에는 신설된 9·11 보안세가 추가됐다. 결국 미국 항공여행에 대한 탑승객의 신뢰는 되찾을 수 있었지만 그만큼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

> 사랑, 믿음, 배려심 등 수많은 가치 중 인간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신뢰의 속도〉의 저자 스티븐 M. R. 코비는 '신뢰의 공식'을 제시하면서 인간에게 있어 신뢰가 최상의 가치임을 일깨워준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과 〈포천〉지가 선정한 5백대 기업의 리더들을 컨설팅해 얻은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신뢰와 성과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책을 완성했다. 즉 신뢰는 수치로 환산할 수 있으며 경제적 수익과 실질적인 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유형 자산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신뢰는 한번 잃으면 회복할 수 없다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지만 범칙금을 내고 법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웃들이 안전한 운전자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신뢰를 잃었더라도 성숙하게 대처하면 실수를 통해 이미 배웠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뢰를 얻거나 회복하기 위해선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말과 행동, 가치관이 일치하는 성실성을 보여야 한다' '주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능력을 갖춘다' 등 신뢰성의 4가지 핵심 요소를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G

글 · 김민지 기자

山에서 나와 都市에서 부활하는 우리 술

# 막걸리 열풍, 전통주 세계화로 이어가자

가히 막걸리 전성시대라 부를 만하다. 와인과 사케에 이어 막걸리가 뜨고 있다. 언제부터 막걸리가 이런 대접을 받았나? 한마디로 격세지감이다. 어린 시절 막걸리는 양은 주전자 꼭지에 주둥이를 대고 한 모금 꿀꺽 마시던 술이다. 큰 광주리에 담긴 못밥을 이고 논두렁 사이를 걷는 어머니 곁에서 5리터짜리 주전자를 들고 뒤따른다. 눈치껏 한 모금씩 꿀꺽 마신다. 어차피 찰랑거려 넘친다는 이유를 마음속으로 중얼대면서. 그러니까 목이 말라 마시는 게 아니라 버려지는 게 아까워서 마시는 것뿐이라면서.

웬만한 시골집에서 술을 담그는 것은 장 담그는 것에 비할 만큼 흔한 일이었다. 일컬어 가양주(家釀酒)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막걸리는 사라졌다. 쌀이 부족하던 시절, 도시락에 보리쌀이 섞였는지 검사하던 시절… 쌀로 막걸리를 담그는 게 금지됐다. 먹을 곡식이 부족한 형편에 술이라니. 하지만 술지게미로 끼니를 때운 기억이 있는 사람들에게 막걸리는 술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기도 했다.



사진 · 김희준

우리 음식엔 우리 술이 최고다. 최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막걸리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전통주와 한식 세계화를 위한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난 세월 우리 것을 괄시하고 서양 문물을 좇아온 풍토 속에서 막걸리도 마찬가지 신세였다. 맥주가 도시의 술이라면, 막걸리는 농촌의 술이다. 맥주가 도시와 근대화를 상징한다면 막걸리는 가난했던 시대와 농촌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요즘은 농촌에서도 푸대접을 받는 형편이다. 못밥에서도 맥주가 막걸리를 밀어낸 지 오래 됐다.

사라질 뻔했던 막걸리가 그나마 명맥을 이어온 것은 등산객들의 공이다. 가을산은 단풍이 아니라 막걸리 때문에 붉은 듯하다. 주말이면 국내 유명산은 막걸리 냄새로 가득하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등산을 즐긴다는 통계가 나오는 요즘, 막걸리는 산에서 나와 도시에서 부활하고 있다.

**술과 음식은 하나… 막걸리 인기 우리 술 세계화의 기회**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서울 강남과 홍대 앞에서 막걸리는 와인과 사케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족발과 머리고기가 아니라 안심 샐러드와 해산물 튀김이 막걸리와 함께하는 풍경이다. 촌티를 벗고 세련된 도시의 술로 변모하고 있다.

반가운 일이다. 나는 와인 예찬론자가 아니듯 막걸리 예찬론자가 아니다. 하지만 막걸리의 부활이 반가운 것은 그것이 우리 음식의 제짝이기 때문이다. 나는 애써 우리 음식과 포도주의 궁합을 맞추려는 시도를 수상쩍게 생각한다.

우리 음식엔 우리 술이 최고다. 아니 '음식(飮食)'이란 문자 그대로, 먹고 마시는 것을 함께 일컫는 말이 아닌가? 음식을 굳이 영어로 표기하면 'Food'가 아니라 'Food&Wine'이나 'Food&Drink'가 옳다. 영어에서 'Food&Wine'은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관용어(Idiom)다. 서양 사람들은 와인을 일컬어 '드링킹 푸드(Drinking Food)'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막걸리와 전통주도 우리 음식문화에서 빠질 수 없다.

다시 살아난 막걸리의 인기와 유행은 최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한식 세계화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 막걸리뿐 아니라 우리 술 전체를 되살려 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 술과 음식이 제짝을 만나 한 몸이 되면 세계화가 더 빨라질 것 같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 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적 기관이 필요하다. 우선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막걸리 공장의 경험과 기술을 모아 품질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 이때 와인 종주국으로 꼽히는 프랑스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게 좋겠다.

프랑스가 와인 종주국 자리를 차지한 것은 정부가 체계적으로 품질을 관리한 덕분이다. 이미 1900년대 초부터 정부가 모든 농산물을 관리하기 시작한 프랑스는 1935년 국립원산지명칭연구소(Institut National des Appellations d'Origine)를 만들고, 프랑스 와인 등급의 기준이 되는 AOC 제도를 시행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와인은 크게 발전했고 전세계 와인의 대표주자가 됐다. 이후 이탈리아나 스페인, 포르투갈 등도 프랑스를 본뜬 품질 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이제 우리도 막걸리뿐 아니라 지방의 전통주를 되살리는 체계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할 때다. G

글 · 손일영(칼럼니스트)

# 4대강 살리기

## 알뜰하고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 국가 예산 2~3%로 홍수와 가뭄을 근원적으로 예방합니다

- 최근 4년간 수해복구와 예방비로 16조원이 들었습니다.
- 이제 사후복구에서 예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40년간 방치했던 수자원과 생태계를 되살립니다

- 오염원을 차단하고 첨단보를 설치해 깨끗한 강물로 복원합니다.
- 자전거 도로, 둔치공원 등 전국의 강변과 지역문화가 살아납니다.

### 4대강 살리기는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 34만개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옵니다.

### 내년 SOC예산은 적정 규모로 지원하겠습니다

-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올해 SOC예산이 한시적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내년에는 경제가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발전 등에 효과가 큰 사업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미리 대비!**
**녹색성장 일류 국가!**

대한민국정부

Weekly 공감




대출받기 어려운 처지의 서민을 위한 따뜻한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정부가 9월 17일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해 ‘미소(美少)금융’으로 이름 지은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향후 10년간 2조원대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 서민들이 5백만원까지 무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탤런트 이정길 씨는 서민들의 신용회복을 돕는 신용회복위원회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희망을 전하고 있다.